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 항공

AIR FORCE MONTHLY



1999

통권 제251호

공군본부

## C O N T E N T S

칼럼	가족의 제자리 찾기와 의미 되살리기	4
공군은 지금		6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고귀한 만남	8
마음으로 읽는 글	문경 개소금 10남매 가족 이야기	10
	이름	12
공군 사랑방	어른의 아버지	14
이달의 시	엄마의 일기	15
Zoom In	항공생리 교육훈련부를 찾아서	16
I Love Air Force	하늘을 닮은 사람들	18
	한국 공군에서의 '아름다운 시절'	20
	대방동과 아버지, 그리고 나	21
기획 특집	한눈으로 보는 세계 항공기 발달사	22
정보 비행	차가운 바닷물 속의 '디카프리오'	26
<b>이달에 만난 사람</b>	"최고의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28
<b>한문으로 배우는 충효</b>	도궁비현(圖窮比見)	29
<b>마음따라 가는 길</b>	호국의 얼이 깃든 전주성을 찾아서	30
<b>항공기 열전</b>	걸프전의 영웅, 스텔스 전투기	34
<b>기상 전망대</b>	5월은 일하기 좋은 달	35
<b>취미의 세계</b>	디지털 카메라로 즐기는 사진 촬영	36
<b>나의 유학기</b>	퍼듀대학에서 일어난 일들	38
<b>경제를 살리는 지혜</b>	경제난, 우리가 극복한다	40
<b>Green Air Force</b>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	43
<b>문화 마당</b>	낮익은 이야기의 품격있는 포장, 연극 <어머니>	44
<b>Air Power</b>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46
<b>캡페인</b>	건전한 회식 문화 정착을 위하여	48
<b>나의 생각 나의 느낌</b>	군생활 속에서의 가르침과 보람	49
	대기병, 그 긴장되는 시작	50
<b>이달의 공군 역사</b>	5월의 공군 역사	51
<b>신간 안내</b>	현대항공우주무기총람 外 1권	52
<b>알립니다</b>		53
<b>독자의 소리</b>		54
<b>포토 에세이</b>	나 이곳에서 하나되었네	55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준택

공군 전 장병은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국정 개혁 보고 회의시 “최고의 안보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초전에 적을 즉각 격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을 깊이 명심하고, 실전적 강훈련을 통해 어떠한 양태의 적 도발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 유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월간 참모회의 훈시」 중에서

# 가족의 제자리 찾기와 의미 되살리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교수 안호용

한국인에게 있어 가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대부분 파는 물보다 진한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가족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자못 다르다.

## 가정의 달 5월에 생각하는 한국의 가정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전에는 어머니날)이 있다. 특별한 날을 지정하는 것은 그 소중함을 때맞춰 기리자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중함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어린이나 어머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도 1년에 하루쯤은 제대로 대접받아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달간이나 가정을 생각해야 할 만큼 가족의 문제는 심각해진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해체적인 징

후이며 심각한 가족 문제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심각한

한 문제가 없는 평범

한 가정에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정한 한국 가

정의 위기는 다

른 곳에서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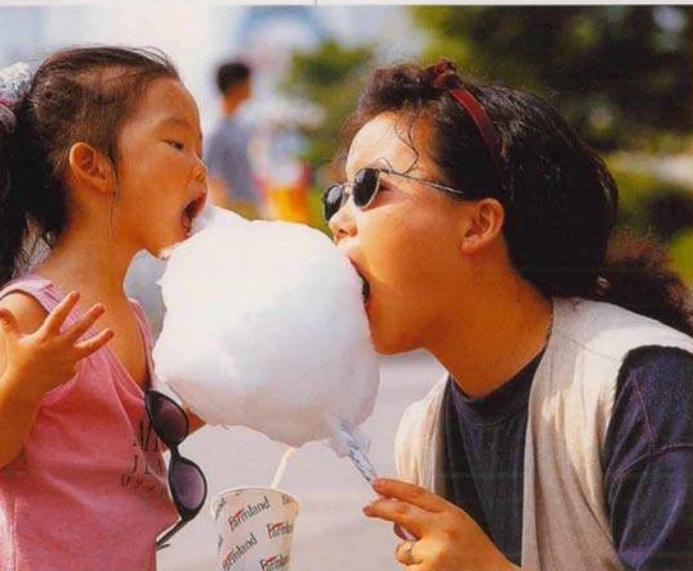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화목한 가족의 상은 정말로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에서 이를 수 있는  
최상의 가족은 바로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가족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면 자기 가족에 대한  
불만족은 재정의될 것이다.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보통 가정에 사는 사람의 대다수가 가족 관계에 불만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일 것이다. 누구나 자기 부모 형제에 대한 불만은 있기 마련이고,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다름아닌 자기의 가족이다. 자기를 가장 구속하는 사람은 부모이며, 자라면서 가장 많이 얻어맞는 곳도 집이다.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은 형제들이며, 내 물건을 가장 많이 빼앗은 사람도 형제이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 가족의 문제는 더욱 커 보이고, 따라서 자기만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더욱이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의 이



상(理想)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은 커진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위기의 가정, 실종되는 가족원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가족원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이나 IMF 실직 가정의 노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예컨대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즉, 가족의 역할이 상실됨으로써 부자 관계는 학비벌이와 학생의 관계로, 모녀 관계는 밥해주는 사람과 학생의 관계로 변질되었다. 아들과 딸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학생일 따름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정은 가족원이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몇몇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모여 있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들이 한데 모일 기회조차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모두 함께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족은 어찌 보면 텔레비전 연속극 속이나, 그것도 가끔 등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연속극 속의 가족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화목한 가족의 상은 정말로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에서 이를 수 있는 최상의 가족은 바로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가족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면 자기 가족에 대한 불만족은 재정의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증오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가족의 구속과 갈등은 애정과 배려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행복한 가정을 되찾는 길



이제 자기 자신의 가족을 꼼꼼히 돌아보아야 한다. 추상적인 의미의 가족의 중요성 따위는 잊어야 한다. 한국의 모든 가족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가족은 화목한 것'이라는 이상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이 현실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다른 위치에 처해 있는 가족들은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가능한 행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실종된 가족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아들과 딸이 아들과 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들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추상적인 수준의 가족의 중요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소중한 나의 가족을 현실에서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가족원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가족에게는 행복만이 있을 것이다. ➤

# R.O.K



1



3



2



4

- 1 참모총장 식목일 행사 참석 (4. 5)
- 2 군수사령부 『항공기 애로품목 창 수리능력 개발 시연회』 개최 (4. 1)
- 3 군수사령부 공군 최초 제작 항공기 『부활호』 46년만에 복원, 공군사관학교 기증 (4. 3)
- 4 공군 T-38(탈론) 고등비행훈련기 미국서 임차도입 (4. 1)

# Air Force



5



6



7



8

- 5 교육사령부 시의회 의원 일일 병영체험 (4. 7)
- 6 3591부대 공군창군 50주년 기념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개최 (4. 14)
- 7 5315부대 이동 레이더 전개훈련 실시 (4. 3)
- 8 5718부대 『뮤젠 실내악단』 초청 연주회 실시 (4. 9)

싱그러운 꽃내음이 봄소식을 알려더니 어느새  
신록 사이로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보이는  
5월입니다.

5월에는 유난히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  
버이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이  
끌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넓은 의미에서 삶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잊고 있  
었던 우리들의 선생님과 인생의 스승을 생각해 봅  
니다.

### 인생의 길목에서 되돌아보는 '만남'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좋은 사  
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  
의 길목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  
에 반드시 만남이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인생  
을 살고 난 후 되돌아보면 더욱 확연해진다고 합니  
다. 그래서 인생을 반추해보면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사람  
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두고두고 감사를 전해야만 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  
다.

그러나 바쁜 하루하루의 생활에 치이다 보면 그  
런 고마움도 다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계절이 바뀌고 어  
느 순간엔가 문득 자신이 만나왔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생각할 때면, 우리들은 숙연히 웃기를 가  
다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것  
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만남을 있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며 인생  
을 점검해 봄이 좋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오늘 자신의 모습  
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

# 세상의 고귀한 만남

들을 알고도 바쁜 일상과 생활의 굴레에 묶여 조그마한 감사의 표시도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오늘의 '나' 를 있게 한 만남들

어떤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지금껏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그의 스승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일생은 그저 캄캄한 어둠으로 끝났을 것이며, 한석봉이 그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어찌 후일에 유명한 명필가로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군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혼자서 헤쳐나가기 힘들었던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훈련에서 낙오하려 할 때 이끌어주던 훈육관님, 업무상 조그만 실수를 애정으로 덮어주던 선임이나 부서장님, 힘들고 괴로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로 여러분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던 부대의 지휘관님,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힘을 빌려주었던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바쁘다는 핑계로 행여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더욱 더 고귀한 '만남' 을 위하여

유독 스승의 날이 되어서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 날만이라도 지난 시절 그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기대를 기억해 보며 그분들의 은혜와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스승이 학창 시절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예전에 모셨던 상관일 수도 있으며, 선배님 또는 그밖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화창한 5월 봄날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분들에게 그 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림이 어떨까요? 시간을 내서 오랜만에 한 번 찾아가 뵙거나, 아니면 옛 시절을 생각하며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드린다면 그분들과의 만남이 더욱 고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요? ☺

8전비 소위 김도형

유독 스승의 날이 되어서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 날만이라도 지난 시절 그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기대를 기억해 보며 그분들의 은혜와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농사중 으뜸은 자식 농사라 문경 깨소금 10남매 가족 이야기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지어야 할 농사는 자식 농사라 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문경 땅에 사는 최차순 할머니(79)는 자식 농사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지었다며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를 틈이 없다. 환갑을 바라보는 맏딸 창옥(59)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길(아들·53), 창남(딸·50), 영술(아들·47), 창기(딸·45), 용훈(아들·43), 용식(아들·41), 용섭(아들·38), 용진(아들·35)에 이르기까지 어느 자식 하나 효심과 우애 없는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볼 때까지 딸만 셋이었다 아입니까. 기가 죽어서 마 고개도 못 들고 살았습시다. 내 열여섯에 일본 공출을 피해서 얼떨결에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다 인생 다 보낸 거 같습시다.”

길쌈 솜씨가 좋아 무명이며 삼베옷을 모두 짜서 만들어 입혔다는 최차순 할머니. 남편의 유난스러운 아들딸 차별 정책(?)에 아직도 딸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하는데….

“말도 마이소 기집아들은 지 이름 석자만 알면 되지 공부는 와 하는 기냐 카는 거라예. 호롱불 닳는다고 딸들은 자라 카고, 다른 집은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데 우리 집 딸아들은 공부하려고 도망다녔습시다.”

열두 식구 살기에 아무리 방이 좁았어도 함께 잠들어 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금슬이 좋았던 남편, 배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잠들 만큼 아들 편애가 심했던 남편. 그래도 기본 학비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3~4년 터울로 자식을 심었던 남편은 지난 85년 69세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토록 미움받고 다란 딸들이지만 아버님에 대한 효심 또한 지극하다.

“열 자식 다 먹이고 공부시킬라면 이해도 갑니다. 아버님한테 면서기 제의가 왔었는데예, 열 자식 다 못 먹인다고 그만 안하셨다고 그래예. 그래도 자식 사랑 지극하셨습니다.”(맏딸 창옥)

“말도 마이소 우리 아버지 별명은 스쿠루지 영감입니다. 여섯 제 창기가 백일장에서 1등을 했는데예, 아버지가 보리밭 갈아야 한다고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라예. 상 받으러 도망갔다 아입니까. 하지 말라 카이 더 하고 싶어지는데예. 그래서 저는 공부 잘했습니다.”(창남)

“장남하고 둘째 빼고는예, 나락 베는 날하고 보리 심는 날은 조퇴하고 오라 캬습니다. 조퇴 안하고 늦게 오다가 오줌장군통 들고 오시던 아버지한테 들켜서 죽을 뻔했지예.”(창기)

밭일 논일 하기 싫어 ‘차라리 땅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던 날이 더 많았다는 것이 이 집 딸들의 향연. 그러나 ‘너희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남한테 의지하면 안된다.'는 삶의 철칙 때문에, 편애 속에 자란 아들들이지만 누나들한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다고 한다.

“큰아들 자량은 얼마나 유별나셨다고예. 발일 한 번 안 시키고 짚신도 제일 예쁜 거 신기고, 밀가루조차 없어서 감자 삶아먹을 때도예, 영길이는 마 쌀 구해서 쌀밥 먹였다 아입니까. 영길이 빼고 우리 키가 다 큰 이유는 아마 그때 먹은 수제비 국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중에서도 특히 맏아들 편애가 심해 나머지 아홉 자식 구박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10남매 모두가 우애 깊은 것이 이 집의 가장 큰 자랑이다.

“누님들이 바쁜 어머니 아버지 대신해서 우릴 업어서 길러주셨습니다. 다 알지예.

그런데 나이먹은 누이가 창피해서 누님 보고 할머니라 불렀다 아입니까. 그래도 우리 누부(누이)들은 다 아들들 보다가드였어예. 누가 때리면 그날이 장사날이었습니더.

누부가 엄마고 아버님이었지예.”(용진)

“하루는예, 둘째가 이라는 기라예. ‘누부야, 아버지가 누부한테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난생 처음 불고기 사주는데예, 눈물 나데예.”(창욱)

그토록 심했던 아들 편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우애는 눈물겹기만 하다.

이제 다들 자기의 삶을 마련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이들 남매의 소망은 10남매와 어머니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이다.

“일곱째가 건축업을 하거든예. 그래서 집을 직접

짓는다 아입니까. 옹기종기 먼저 세 가구를 지었는데예, 창문만 열면 집이 서로 보입니더. 열 남매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꿈이지예. 어머니 80 전에예...”(용훈)

모두가 흠어져 자기끼리만 살고 싶은 것이 요즘의 세태. 그래서인지 이들 가족의 바람은 더욱 소박하고 간절하게 들려온다.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삶을 꾸려오면서 더욱 깊은 정을 쌓아온 최차순 할머니와 10남매. 이들 가족에게선 은은하면서도 짙은 향기와 온기가 느껴진다. 우리 시대에 만들어야 할 가족의 상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던가. 가족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요, 햇살이요, 그늘이요, 바람, 그리고 든든한 힘이어서 하지 않을까? ☺

방송작가 허윤정



# 이름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 남자의 컷가로 바로 다가오지 않고 컷바퀴 밖의 어느 지점에선가 뾰뾰 도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치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아득하기도 했고, 햇살 좋은 오후의 늦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아늑한 잠결에 듣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남자는 기지개라도 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렇게 따뜻하고도 쓸쓸하게 말하고 있을까 싶었지요.

마취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의 그 구름 속 같은 느낌은 잠시였습니다. 그토록 평온하고 마치 구름 침대 위에 누운 것 같던 포근함은 이내 사라지고 몸 안에 남은 통증들이 그 남자의 의식을 찢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느낌과 날카로운 고통은 이내 뒤섞이면서 그 남자의 의식을 현실로 불러왔지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면서 그 남자는 그제서야 컷바퀴 밖에서 뾰뾰 들던 소리들을 비로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빈아... 빈아...”

마치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놀던 다섯 살짜리 꼬마를 부르시듯 어머니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커튼이 내려져서 오후의 햇살이 창 밖에 밀려나 있는 병실. 창 밖이 참 밝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도 창 안은 어둑한 그 이중적인 조화 속에서 그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눈물 가득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신 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쳤지요.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가 간절하게 부르던 그 남자의 이름. 빛나게 살라고, 또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빛날 빈’ 자를 넣어서 지어주셨다면 그 이름. 자신에게로 와서는 이름의 의미처럼 빛나지 못하고 늘

어머니가 간절하게 부르던 그 남자의 이름. 빛나게 살라고, 또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빛날 빈’ 자를 넣어서 지어주셨다면 그 이름. 자신에게로 와서는 이름의 의미처럼 빛나지 못하고 늘 침처럼 여겨졌던 이름. 그 이름을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침처럼 여겨졌던 이름. 그 이름을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그 이름을 들어보는 것처럼 낯설기도 했고, 어느 누군가 성스러운 삶을 살다간 성인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문득 경건하게 들리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몸 안을 도는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내 어머니의 가슴에 빛나는 이름으로 남지 못하고 가슴 아픈 이름으로 살아왔구나. 그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마취와 고통의 경계선에서 느끼는 아득한 슬픔 끝에 그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5년 전 이맘때 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그 남자.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얻은 실연의 상처를 오래 잊지 못하고 방황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지요. 몸의 많은 부분이 망가져서 그 남자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막 깨어났을 때 그 남자는 어머니께서 서럽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에 실려오던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제 삶의 온전한 길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느 만큼 회복한 채로 오늘을 맞았지요.

때때로 삶이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그 남자는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가 부르시던 자신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풀 수 없는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힘이 문득 생기곤 하지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부르시던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게 되리라는 것을 그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

방송작가 김 미 라

# 어른의 아버지

이동문학가 김 정 일

또다시 어린이날이 돌아왔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구를 남겼고, 덴마크가 낳은 불멸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다.”라고 했다.

어떤 이는 동심을 양심이라고 했고, 소파 선생은 동심여선(童心如仙)이라고 표현했다. 구슬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도 까르르 웃고 싶고, 돌맹이 같은 무생물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게 어린이들의 마음이다.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다. 초등학교 4학년 딸과 2학년 아들이 서로 가지려고 눈만 뜨면 다투었다. 동생이 안고 있으면 누나가 빼앗고, 누나가 안고 있으면 동생이 빼앗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2학년 아들은 고양이를 안고 나하고 작은방에서 같이 자고 딸은 제 어머니하고 큰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캄캄한 한밤중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깨어보니 큰방에서 자고 있던 딸이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내 방으로 들어와 동생 품에 안겨 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고 나가는데 아닌가.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모른 척 자버렸는데 얼마쯤 지나자 또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놈이 어떻게 고양이 없어진걸 알았는지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잠시 후 고양이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세계가 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질책을 한다. 어린이는 어른이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잘못이 있어도 오히려 웃음을 보내고 그들의 단순 소박한 순수성을 배우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어린이는 어른에게 지식을 배우고 생존 방법의 길을 배우며 자란다. 그러나 어른도 어린이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면 어떨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 엄마의 일기

## 놀이터에 앉아

최 미 향 20전비 상사 김영철의 처

초록이 뒤덮인  
잔디밭머리  
재잘대던 아이들  
놀이터 그네는  
해맑은 하늘 사이  
환한 웃음을 피운다

지난날  
우리가 짝을 지어  
함께 도는 톱니로  
민들레 꽃  
꿈을 가꿀 때  
기다림의 시간은  
받기는 기쁨이었다

어쩌다  
힘겨운 손길  
곳곳에 묻어날 때면  
동심의 잔영 앞에  
흠바람 어머니 초상을  
보는 것 같아  
한시름 접는 연습을 한다

나 어린 시절  
어머니 눈물로 자라  
다시 엄마가 된 지금  
질경이처럼 살아오신  
어머니 사랑이 그랬듯이

밭이랑 땀방울  
끝없어도  
파란 하늘의  
포물선 같은  
그네줄이 되고 싶다

천진스런 내 아이의  
고운 날을 위하여



# 우리 나라 초내성 교육 훈련의 요람 항공생리 교육훈련부를 찾아서

항공생리 교육훈련부는 각종 첨단 훈련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타고서 고공 환경을 접했을 때 발생하는 저산소증, 변압증, 감압증, 중력 가속도, 비행 착각, 야간 시각, 비상 탈출 등을 체험 및 교육하는 기관으로 조종사라면 일정 주기마다(3년~5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 조종사를 위한 전문 교육 훈련 기관

오늘날의 고성능 신예 전투기는 인간의 내성 한계를 초월한 기동력을 발휘함으로써 항공 생리학적으로 심각한 비행 안전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사(戰史)에 의하면 제1차 세계 대전 초기에 사망한 조종사 100명의 사인(死因)을 분석한 결과 공중 전투로 추락사한 경우는 2명이었으며 항공기 기체 결함에 의한 사고 사망은 8명인데 반해 나머지 90명의 사망 원인은 조종사의 신체 결함과 부주의 및 심리적 요인 등의 인적 결함이

있다고 한다.

이후 항공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전체 항공 사고 원인의 약 60%가 조종사의 신체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의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특히 영국에서는 조종사들에게 특별한 인력 관리를 적용한 결과 3년 후에는 사고 사망률을 12%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항공 의학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되어 오늘날 선진 항공력을 보유한 국가라면 수십 년간에 걸쳐 항공 의학 분야에 집중 투자, 엄청난 발전을 이룬 상태이다.

우리 나라에도 항공 의학의 요람이자 총본산인 항공의료원(구 항공의학 적성훈련원, '99년 4월 1일부 개칭)이 있으며, 항공 생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공군 조종사는 물론 육·해군 조종사를 위한 전문 교육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항공생리 교육훈련부이다.

## 조종사들의 필수, 항공 생리 교육 훈련

항공생리 교육훈련부는 1956년 6월 1일 공군 항공의학연구소에 훈련반의 설치로 시작되어 1960년대에는 20인용 저압실 및 야간 시각 훈련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초내성 훈련부로 개칭되면서 비상 탈출, 비행 착각, 가속도 내성 훈련 및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도입 운영하여 본격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32인용 저압실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서울 기지에서 청원 기지로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을 재설치하게 되었고, 최근 1999년 4월 1일 초내성 훈련부에서 항공생리 교육훈련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항공생리 교육훈련부는 각종 첨단 훈련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타고서 고공 환경을 접했을 때 발생하는 저산소증, 변압증, 감압증, 중력 가속도, 비행 착각, 야간 시각, 비상탈출 등을 체험



비행착각 훈련장비(Gyro-Lab)



및 교육하는 기관으로 조종사라면 일정 주기마다(3년~5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훈련부장인 권태욱(공사 33기·38세) 소령은 “비록 2박 3일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조종사들이 완벽한 교육 훈련을 받고서 비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항공의료원의 모든 의무 요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산소증(저압실) 훈련 및 가속도 훈련이 있는 날이면 항상 직접 감독을 하면서 조종사들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한다.

### 쉽없이 계속되는 다양한 훈련들

전투기의 급기동시 발생하는 높은 중력을 견디내기 위한 훈련으로 훈련부에서는 중력 가속도 훈련을 실시하는데, 예비 조종사들의 경우 훈련중 가끔 고개를 숙인 채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하



며 현역 조종사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F-16 조종사의 경우 자신의 체중에 무려 9배나 되는 중력을 견디게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 착각 훈련의 중요성 또한 대단하다. 상하 전후로 움직이면서 가속을 받는 일명 자이로 랩(Gyro-Lab)이라는 실험 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갖는 방향 감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 실제로 착각을 하여 본인이 생리적으로 인지하고 있



던 감각대로 조종간을 움직이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착각의 압박을 견디어내면서 오로지 계기만을 주시하고 계기의 정확성을 신뢰하고 조종을 하여야만 정상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킨다.

비행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회복이 불가능할 때 항공기에서 이탈하는 비상 탈출 훈련은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훈련이어서 슈퍼모델 이소라, 연예인 주병진, 미니시리즈 <창공>의 주인공 공 류시원 등의 인기 탤런트들이 조종사 양성 과정을 촬영할 때면 탑승했던 단골 코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을 하게 될 때에는 이보다 무려 10배의 순간적인 힘을 받는다

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 훈련과 시설을 찾아다니다 보면 훈련부는 첨단 과학의 메커니즘으로서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매년 이곳의 항공생리 교육 훈련을 받는 인원은 조종사, 의무장교, 간호장교, 사관생도, 타군 및 VIP 등을 포함하여 연 2,700여명에 달하며, 매주 4개 차수를 운영하여 쉽없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글·공군본부 대위 권기현  
사진·공군사관학교 상사 조성권

위) 저압실에서 저산소 훈련중인 조종사들과 항공생리 교육훈련부장 권태욱 소령

아래) 비상탈출 훈련장비(Ejection Seat Trainer)

# 하늘을 닮은 사람들

월간 Sir 기자 이 현 주

공군은 정말 하늘을 닮았다. 내가 느낀 공군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가장 가까운 색이 하늘색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편안한 사교성은 선·후배의 관계 속에서나 대인 관계 속에서 참 원만한 다리를 놓아간다.

내가 공군 장교들을 위한 전문 잡지 <Sir>의 취재기자로 일하게 된 지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든다. '공군(空軍)'이라는 큰 타이틀도 새로웠지만 더 광의의 개념에서 '남성 전문 잡지를 여자가 만든다'라는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 공군과 함께한 '정말 좋은 느낌'

긴박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창간호가 손에 들어왔을 때에도 '공군'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우리 잡지의 고객이고 취재거리의 끝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책이 배부되면서부터 긴장감에 묶여 있던 나의 마음은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취재 기간의 시간들을 더듬어 돌이켜보았다. 전 참모총장님도 만났었고 보라매 회관도 갔었고 교육사령부 취재도 하고 공군사관 후보 장교회 창립 총회에도 참석하고... 돌이켜보니 '일'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정말 '일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내가 몰랐던 집단, 체계, 사상, 계승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정말 좋은 느낌을 간직하고 돌아갈 때도 있었고 감격스러운 말씀도 들었다.

내 '일'은 참 즐거운 것이었다.

나는 그 동안 많은 공군 장교(전·현역)분들을 만났다. 내 인생에 이런 과정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나의 기자 생활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그들은 참 겸손하고 친절했으며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기술이 있었다. 공군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삶의 건실한 태도는 밖에서 동경하는 공군의 스마트하고 맑은 이미지를 책임져가고 있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난 인물이었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정해주는 그들의 정신은 공군 시절 젊은 가슴을 메워준 자존(自尊)과 보람이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 정말로 하늘을 닮은 사람들

교육사령부 취재 때 만났던 많은 분들도 지금까지 기억이 뚜렷하다. 그들의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을 보면서 이곳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를 충분히 실감했다. '흡수되는 교육' 이대! 그리고 흡수되는 교육의 효과는 사회 곳곳의 여러 현장 속에서 정금(正金)과 같이 쓰이고 전체를 융화시키는 면모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된다. 공군은 정말 하늘





을 닮았다. 내가 느낀 공군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가장 가까운 색이 하늘색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편안한 사교성은 선·후배의 관계 속에서나 대인 관계 속에서 참 원만한 다리를 놓아간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 했던가!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아니지만 얼마 전 101기 임관식을 마친 공군 사관 후보생들은 선배들의 역량보다 더 유감없는 실력 발휘를 할 것이고 그들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더 뛰어난 공군의 위상을 새로이 만들어 갈 것이다. 그들 선·후배간의 각별한 사이는 그 표현과 모양이 조금도 이그러짐 없이 당당하면서도 존경하는 태도가 참 보기 좋았다. 나는 그 동안 남자 형제가 없음을 참 아쉬워했다. 만약 내게도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면 공군이 되라고 강하게 권하고 싶다.

### 가까이 보면 더욱 돋보이는 공군인

그들의 매력은 그들이 더 잘 안다.

보통 어떤 것이든 문 밖에서 보는 것과 문 열고 들어

가서 보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틀리고 대개가 실망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내가 체험하고 느낀 공군의 실체는 문 밖에서 보던 것보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더욱 돋보이고 뛰어났다.

마지막으로 공군인 전체의 건승을 빌며 인생의 황금기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해본다. 나는 매거진 <Sir>가 그들을 더욱 밀착력 있게 묶어주고 좋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비가 연속 이틀째 내린다. 개나리만 남겨두고 벚꽃은 알뜰하게 숨어버렸다. 비가 지나간 세상은 참 맑고 깨끗하다. 나 역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취재에 임하고 세상을 바라볼 것을 다짐한다. Ⓣ

# 한국 공군에서의 ‘아름다운 시절’

교육사령부 Joan A. Machnik\*



난 이곳에서 내게 일어난 수많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웃으며 떠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한 추억들로 평생 간직하고 싶다.

따뜻하고 파란 하늘에 목련이 활짝 핀 날, 진주에 있는 공군부대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한국 공군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한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내 운명의 축복에 감사함을 느낀다.

## 공군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얻은 것들

공군부대에서 매일 새벽과 밤에 울리는 나팔 소리, 그리고 짝 찢어진 일과 속에 진행되는 생활의 리듬은 내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익힌 일관성 있는 생활은 나의 성격 변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내게 중요한 것과 사사로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도 익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곳 생활을 회상하면서 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일까 자문한다면 협동심, 그리고 건설

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단결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의 고동 소리이자 본능이며,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 기운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심어져 있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 평생 잊지 못할 학생들의 웃음 소리

난 이곳에서 내게 일어난 수많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웃으며 떠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한 추억들로 평생 간직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가르치던 영어교육대 학생들의 웃음 소리, 영어 표현을 해보려는 노력과 실패했던 모습, 진정한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멋진 성취의 모습, 끊임없이 영어를 말하고 들으려 했던 학생들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내게 준 사랑, 내가 준 사랑

나에게 있어 나의 학생들, 내게 언제나 차를 태워주려고 한 내 이웃과 사무실 동료들, 내 마음을 항상 밝게 북돋워 준 아이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너무나 큰 사랑으로 기억된다.

내가 준 불고기와 아이스크림에 길들여져 다른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던, 산책의 동반자였던 개, 소나무 가운데 있던 큰 바위, 두루미와 까치가 모여 있던 연못, 길을 둘러싼 희고 노란 줄무늬로 물들은 무궁화, 교실 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와 새들의 지저귀, 그리고 실장님과 마시던 차 한 잔, 매주 토요일 내 일과의 등장 인물이 되어버린 정문의 현병...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 Joan A. Machnik은 캐나다 태생으로 현재 공군교육사령부 영어교육대에서 3년간 영어 회화 교육을 맡아, 일정적으로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대방동과 아버지, 그리고 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김장현

*아버지의 진한 남색 제복과 어머니가 입은 눈부시게 흰 미니스커트가 공군사관학교 교정의 잔디, 그리고 비행기의 날개에 비친 햇살과 어울려 내뿜던 신선함은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공군에 대한 동경을 심어준 것 같다.*

아버지께서 청년의 꿈을 키우며 병역의 의무를 다했던 곳은 공군본부(당시 서울 대방동 소재)였다. 당시 아버지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군에 합격하여 4년 가까이 복무하셨다. 지겨워하실 만도 한데, 아버지는 병역을 마친 후에도 군에 있을 때 근무했던 대방동을 떠나지 못 하셨다.

## 언덕 너머 '아버지가 계시던 곳'

아버지가 군을 마치고 돌아간 직장도 공군본부 근처에 있는 큰 섬유회사였다. 아버지는 매일 자신이 군생활을 보낸 곳의 문 앞을 걸어다니며 출퇴근을 하셨고, 그 외중에 가정을 꾸려 아예 대방동에 정착하셨다.

내가 커서 국민학교(현 대방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젠 부자(父子)가 함께 공군본부 앞을 지나다니게 되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군본부 앞을 지날 때면 언제나 아버지는 정문 안쪽을 가리키며 "저 언덕 너머에는 아빠가 먹고 자고 하던 곳이 있단다. 언제 한 번 가보자." 하셨다. 은근한 자부(自負)가 섞인 그 약속 때문인지 내겐 언덕 너머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 다만 신비스러울 따름이었다.

## 아버지의 공군 제복, 어머니의 미니스커트

특히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은 커다란 비행기 옆에 서서 찍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애 시절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진한 남색 제복과 어머니가 입은 눈부시게 흰 미니스커트가 공군사관학교 교정의 잔디, 그리고 비행기의 날개에 비친 햇살과 어울려 내뿜던 신선함은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공군에 대한 동경을 심어준 것 같다.

80년대 중반에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보

라매공원이 들어서자, 나는 아버지가 군에 계시던 때 만 들었다는 호숫가에 종종 들렀다. 중고등학교(대방동 성남 중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때면 아버지와 그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당신의 청년 시절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는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내겐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사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비행기의 날개만큼이나 눈부신 은빛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얼마 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친구와 함께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내가 맨날 여기 문 앞을 지나다녔대"

"이 호수 우리 아버지 게실 때 만든 거래."

"저기가 내가 나온 초등학교고, 바로 저기가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대방동에 가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까지 총정리가 된다.

내가 해주는 대방동 사연에 재밌어하는 그녀와 함께 난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은 자세로 바로 그 비행기 앞에 섰다. 공군에 복무하며 마침 휴가를 나온 동생이 남색 제복을 입고 셔터를 누르면서 한 마디,

"형, 2년쯤 뒤엔 나도 찍어 줘야 해."

"그래, 네 여자 친구도 미니스커트 잊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는 찰칵

그 한 장의 사진 속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찍혀진다. ❶

한눈으로 보는 세계 항공기 발달사

# 대비행 시대와 제2차 세계 대전

## 대비행 시대와 항공기의 발달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다음해인 1919년부터 1933년까지의 14년간은 대장정, 즉 장거리 비행 기록 수립 시대로 전개되었다. 장거리 비행 경쟁의 첫 테이프를 끊은 나라는 1차 대전 때 그다지 활약이 많지 않았던 이탈리아로서, 1920년 2월 14일 로마를 출발하여 중동, 인도, 중국 상하이, 그리고 한국의 서울 여의도를 거쳐 5월 11일에 일본 동경에 도착하였다. 2대의 SVA기에 페리린과 별 파니니, 마세로와 마렛트의 2개조로 편성하여 비행 시간 109시간, 평균 시속 160km로 장거리 비행에 성공하였다. 이 대장정은 또한 당시 항속 거리가 짧은 항공기로서 한국을 항로상에 징검다리로서 이용한 첫 사실(史實)로 우리나라 항공 역사에도 큰 의의가

있다.

그 다음의 대장정은 미국의 전직 우편 비행 조종사였던 찰스 린드버그(Charles A. Lindberg)에 의한 세계 최초의 무착륙 대서양 횡단 비행으로, 그의 역사적이고도 용감한 비행은 각계에 자극을 주어 항공 기술 및 항공 수송업 등을 본격적으로 육성시키는 계기가 되어 세계 항공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30년대 항공기의 급격한 진보로 항공기는 복엽식 날개 구조에서 단엽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날개 부착 위치도 고익에서 저익으로 전환되어 항

공기 성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또한 접개식(接開式 : Retractable) 이·착륙 장치와 양력 추가 발생 장치인 플랩(Flap)이 개발되고 과급기(Supercharger)가 부착된 효율 높은 엔진이 개발되었으며, 가변 피치(Variable Pitch) 프로펠러가 사용됨으로써 고공, 고속 및 경제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무선 통신 및 항법 장비와 각종 비행 계기의 개발로 인해 야간 및 계기 비행 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 당시 대표적으로 우수한 상업용 항공기로서 미국의 Douglas DC-3 항공기를 들 수 있는데, 이 항공기는 금속제 단엽기로서 획기적인 항공기로 평가받았고, 1936년 7월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최초로 비행한 후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DC-3 항공기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에 의한 대규모 폭격으로 나치 독일과 군국 일본을 굴복시킴으로써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45년 8월 B-29에 의한 원자탄 투하는 일본을 무조건 항복케 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제트 엔진과 레이더는 항공기 발달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시작될 때까지 세계 수송기의 최고가 되었으며, 그 당시 전 세계 항공로의 거의 90%를 석권하였다.

###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의 항공기

1940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매년 5만 대의 군용 항공기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이 계획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은 이 계획을 실현시켰으며, 실제 전쟁중에는 그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하였다. 미국은 군의 새로운 작전 요구에 따라 항공기의 속도와 항속 거리를 증가시킨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를 설계하여 생산하였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약 30만 대의 항공기

가 생산되었다.

미국 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많은 수의 우수한 항공기를 개발, 생산하여 전쟁에 투입시켰다. 전쟁 초기에 사용된 전투기로서는 독일의 용커스, 메사 슈미트와 영국의 호커·허리케인과 스피트파이어, 미국의 P-38 라이트닝,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 등이 있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에 의한 대규모 폭격으로 나치 독일과 군국 일본을 굴복시킴으로써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45년 8월 B-29에 의한 원자탄 투하는 일본을 무조건 항복케 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제트 엔진과 레이더는 항공기 발달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 사상 최고의 에이스 에리히 하르트만

(Erich Hartmann, 1912~1993)



전무후무한 세계 최고의 에이스 에리히 하르트만은 천재적인 비행 감각과 명석한 판단력으로 총 344대 격추라는 전인미답의 대기록을 세웠다. 당시 미국 최고의 조종사였던 리처드 봉(Richard I. Bong) 소령의 총 격추 기록이 40대였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르트만 소령의 공중전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세 번은 격추되는 적기의 파편에 맞아 비상 착륙을 하였고, 한 번은 공중전 기동중 소련의 Yak-9기와 공중 충돌하여 가까스로 비행장에 귀환하였으며, 두 번은 자신의 항공기 파손으로 낙하산 탈출을 하는 등 총 14회에 걸친 비상 착륙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에는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유배 생활을 하다가 1955년 10월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후 그는 이전의 적이었던 미국에 의해서 재건된 서독 공군에 들어간 뒤 1970년 10월 대령으로 퇴역하였다.

## 1. Junkers Ju 87 Stuka

윙커스 Ju 87 슈투카, 독일

슈투카는 전쟁 초기에 가장 두려운 공중 무기로 사용된 항공기였다.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인 슈투카는 강하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로 더욱 강력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어떤 다른 공대지 공격 무기보다도 사람들의 가슴에 심한 공포를 심어주었다. 이 기종은 고양력 쌍날개의 플랩 에일러론 시스템(Flap Aileron System)을 갖는 강화된 표피로 되어 있으며, 바깥 날개 아래 힌지로 연결된 브레이크를 장비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VDM 전속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는 60° 또는 70°의 급강하시에도 엔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이 기종은 생산이 중단되기까지 총 5,700대가 만들어졌다.



## 2. Messerschmitt Bf109

메서슈미트 Bf 109, 독일

Bf-109의 제작은 독일 공군상이 1933년 새로운 전투기 생산 계획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시제기가 1935년 5월말에 제작되어 처녀 비행을 실시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기동력이 우수하여 상승 및 강하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독일의 복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단히 좁은 착륙 장치는 많은 이점을 주는 세심한 설계의 결과였다. Bf-109는 총 30,500대가 생산되었으며, 1944년에 생산이 중단되었다.



## 3. Focke-Wulf Fw190

포케-볼프 Fw 190, 독일

1937년 브레멘(Bremen)의 포케-볼프(Focke-wulf)사는 메서슈미트 Bf-109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설계, 개발하게 되었다. 첫 생산된 Fw190은 MG FF 기관포와 기관총에 추가하여 새로운 마우저(Mauser) MG-151/20 기관포의 장비가 장착되었다.

이 전투기는 Bf-109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로서 전술 탐지 능력과 저고도에서 기동성이 뛰어나며 다루기가 편리하고 더욱 막강한 공격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다.



## 4. Hawker Hurricane

호커 허리케인, 영국

허리케인은 1934년에서 1935년 사이에 시드니 캠(Sydney Camm)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 항공기는 현대적인 외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과 전통적인 제작 방법의 절충형이었다. 가벼운 금속 표피 모노코크 몸체 대신에 관형금속 단면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강화된 금속 날개의 표피는 1935년 11월 6일 최초 비행 전

에 이미 설계되었다. 이 날개는 전쟁이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 후 허리케인은 총 14,231대가 생산되었으며, 그중 1,451대는 캐나다에서 제작되었다.



## 5. Supermarine Spitfire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영국

영국에서 스피트파이어는 항공기 이상의 상징이었다. 프랑스가 함락된 후 독일은 영국해협을 넘어 대량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때 영국의 방어는 스피트파이어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했던 조종사뿐이었다.

1934년 여름에야 영국의 항공 산업은 잠에서 깨어났다. 비행중대 지휘관이었던 랄프 소울리(Ralph Sorley)는 '미래의 전투기는 8개의 기총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미첼(Mitchell)이 받아들여 새로운 단좌 전투기의 설계를 시작한 것이다.

1936년 3월 미첼의 스피트파이어는 오늘날의 사우쓰 햄프턴(South Hampton) 공항에서 처녀 비행을 실시했으며, 그후 처음엔 310대가 제작되어 영국 공군에 배치되었다. 1948년 3월까지 22가지의 다양한 모델로 20,346대가 제작, 사용되었다.



## 6. Lockheed P-38 Lightning

록히드 P-38 라이트닝, 미국

1937년 록히드 항공사는 미국 군부로부터 중고도에서 360mph의 장거리 요격과 1시간 이상의 항속 시간을 갖는 제원의 비행기를 요구받고 쌍발의 P-38 전투기를 개발하게 된다.

또한 P-38E는 20mm M2 기총을 장착하여 공중전에서 독일 전투기 포케-볼프 Fw200C를 격추시키기도 했다. 전쟁 후엔 이탈리아의 IMAM사에 의해 P-38L의 형으로 많은 수가 재생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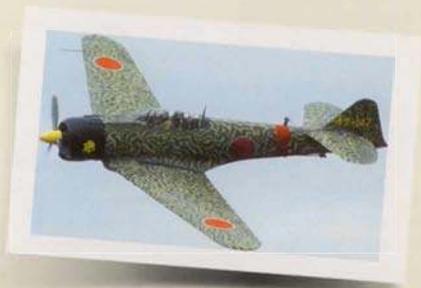
## 7. Mitsubishi A6M Zero-Sen

미츠비시 A6M 제로센, 일본

이 전투기는 제로기 또는 제로센으로 알려진 일본의 유명한 전투기로서 미츠비시 A5M을 대신할 목적으로 항공기 설계자인 호리코시 지로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1937년부터 시작된 설계의 기본 개념은 500km/h의 속도를 갖고 항속 거리가 긴 항공모함용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1940년에 15대가 제작되어 중국 전선에 배치되었으며 2대의 손실로 적기 99대를 격추하는 대단한 기록을 통하여 서방 세계에 그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 전투기의 모든 성능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것이었으며, 1943년 여름 미국의 F4U 코르세어(Corsair)가 나올 때까지는 능가할 비행기가 없었다. 2차 대전을 통하여 일본 해군 전투기의 8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가미가제로 유명한 MXY-7S형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하게 개조되었고, 그 생산 대수는 약 10,450대 정도에 이르렀다. 📍

공군박물관장 김 영 주



들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것.”

19세기의 박물학자 존 뮤어는 빙산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빙산도 “하느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라고 소리치는 오만한 인간 앞에선 더 이상 아름다운 존재일 수만은 없었다. 일순간 거대한 흥기로 변해버린 빙산은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타이타닉 호’를 종이처럼 찢어버렸고, 후에 이 사건은 영화 <타이타닉>으로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 영원히 사라져버린 타이타닉 호

영화 <타이타닉>을 보자. 《필라델피아 상류층의 딸이었지만 몰락해 버린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하는 여주인공, 선술집에서 도박으로 딴 삼등실 표를 가지고 ‘꿈의 배’에 올라탄 남주인공. 그들간의 사랑, 약혼자와의 갈등, 세계 최고의 배라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 1912년 당시 영국 사회 상류층의 이기심과 위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중에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 보여주는 남주인공(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의 아가페적 사랑은 너무나 감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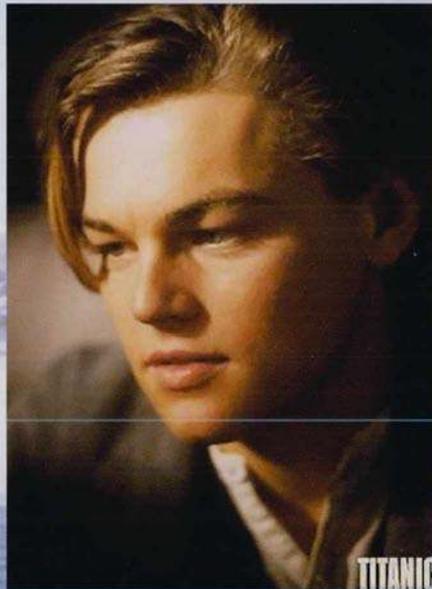
영화 <타이타닉>은 실제 타이타닉 호의 침몰 과정을 철저한 고증 작업에 의해 거의 정확하게 재현하였다고 한다.

《배가 빙산과 충돌하자 전체 승객의 3분

보트를 타고 탈출한다. 배는 점점 기울어지면서 흑한의 북대서양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다. 빙산과 충돌한 지 대략 2시간 반 후에 드디어 바닷물은 ‘타이타닉 호’의 뱃머리까지 올라왔고, 순간 배가 수직으로 서는가 싶더니 1513명을 태운 채 바다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차가운 바다 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둘 죽어간다.》

### 추운 바닷물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보통 환경에서 체온은 체온 조절 중추 기능에 의해 1°C 이상 하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온도가 낮은 바닷물 속에서는 곧 35°C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 현상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잠에 취하거나 환청과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람의 체온이 30°C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게 되고, 25°C 이하로



5월달 경기만의 평균

해수 온도는 12℃,

남해는 16℃를

보인다. 만일 이때

경기만에서 작전중

조난을 당했다면

3시간 이내에

구조되어야 하지만

남해에서는 6시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것은 바닷물 온도

4℃의 차이에 생존

시간이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떨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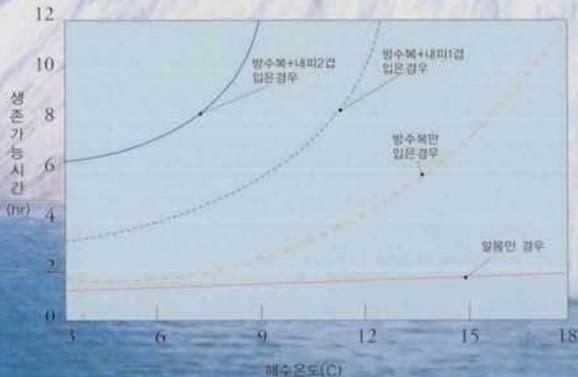
영화 속에서 배가 바다 속으로 사라진 뒤 약 2시간 후에 최초의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한다. 승무원들은 타이타닉 호의 구명보트가 빙산의 부스러기로 덮인 10km의 바다에 흩어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구조 작업을 펼친다. 그러나 보트에 탄 사람을 제외한 바다 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체온 하강으로 인해 얼어 죽고 만 것이다.

그럼 과연 바다에 빠졌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간 전적으로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시 타이타닉 호가 침몰되었던 지점의 바닷물의 온도는 약 6℃로 추정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사고 지점의 해수 온도는 12~16℃로 알려져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한류가 북위 42도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빙하가 녹지 않았던 것이었다.

###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4℃의 차이

공군 항공의료원에 의하면(도표) 바닷물의 온도가 6℃일 때 알몸인 경우가 1시간, 방수

해수온도에 따른 생존시간



복을 입었을 때 2시간, 방수복 안에 내피 옷을 한 벌 꺼입었을 때 4시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옷을 입고 빠진 것을 방수복을 입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정도 온도의 바닷물에서 2시간 정도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되니, 영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는 실제로 해상 작전을 하게 되는 공군 조종사나 해군 장병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5월달 경기만의 평균 해수 온도는 12℃, 남해는 16℃를 보인다. 만일 이때 경기만에서 작전중 조난을 당했다면 3시간 이내에 구조되어야 하지만 남해에서는 6시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것은 바닷물 온도 4℃의 차이에 생존 시간이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바닷물의 작은 온도 차이라도 생존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고, 바닷물 온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 작전이 펼쳐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도표 참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누구 없어요?” 구명보트가 생존자를 찾는다. 여주인공 윈슬렛이 의식을 차리고 손에 쥐고 있던 호루라기를 분다. 안타깝게도 그 소리는 너무나 작다. 구명보트는 멀리 사라져 간다. 그녀는 바닷물로 뛰어든다. 그리고 보트 쪽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헤엄쳐 간다. 결국 그녀는 구조된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법칙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닐까? 🕊

73기상전대 기상연구부

# “최고의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공군 3107부대 함성옥 군무원

“그때 저는 훌륭한 여성 항공정비사로 성장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성의 세계를 넓힌다는 것과 남성들을 잘못된 편견에서 일깨울 수 있다는 것 말이죠.”

남성들만의 세계로 알려진 항공 정비 분야에 진출하여 아리따운 미모와 재기발랄한 20대 여성 특유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며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 공군 3107부대 야전정비대대 항공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함성옥(23세·9급) 군무원.

## 여성 항공정비사의 두 가지 의미

국내 항공 전문인 양성의 요람인 코리아나 항공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97년 6월 1일 항공정비사의 꿈을 펼치기 위해 공군 3107부대에 힘차게 첫발을 내딛은 함성옥 씨. 그녀는 처음 부임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앓된 미소와 함께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여자인 제가 남성들도 힘들어하는 항공정비사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제 자신보다 주변의 남자들이 더 당황하는 듯했습니다. 그런 당황하는 표정 속에서 남자들의 편견을 보았지요. 그때 저는 훌륭한 여성 항공정비사로 성장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성의 세계를 넓힌다는 것과 남성들을 잘못된 편견에서 일깨울 수 있다는 것 말



이죠.”

현재 항공기 지원 장비 및 무장 장착 장비의 주기 검사 등 항공정비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녀는 “부족한 점이 아직 많지만 하루 빨리 완벽한 항공기 정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어 최고의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포부를 밝혔다.

## 새로운 활력소,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

함군무원은 “항공 정비 분야가 직접적인 육체 활동보다는 전문성 중심의 활동이 요구되고 또 남녀 차별도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항공 정비 분야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작업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녀를 두고 모범적이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동료들의 평가를 들어볼 때, 그녀가 최고의 항공정비사가 되는 길은 멀지 않았다. Ⓣ

3107부대 대위 김 준 진



# 도궁비현 (圖窮匕見)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 담 구

圖

그림 도

(총14획 · 口부수)

窮

다할 궁

(총15획 · 穴부수)

匕

비수 비

(총2획 · 匕부수)

見

나타날 현

(총7획 · 見부수)

기원전 3세기경의 일이다. 연(燕)나라 태자 단(丹)은 진(秦)나라의 인질로 가 있다가 도망쳐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당연히 진나라의 보복이 두려웠다. 또 한편 인질로 있던 중 받은 모욕적인 대우도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시대말게인 당시 진나라의 국력이 워낙 강대했으므로 모든 나라가 벌벌 떨고 있는 형편이었다.

고심하고 있던 태자 단은 형가(荊軻)라는 사람을 은밀히 소개받아 크게 고무되었다. 형가는 머리가 좋은데다 담력도 대단하고 학문도 깊고 검술에도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태자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짜보았지만 결국 진나라 왕에게 접근하여 틈을 보아 기습하여 살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계획대로 태자는 우선 형가를 연나라의 대신으로 등용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형가가 연나라의 사신이 되어 진나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진왕에게 접근하느냐였다. 머리를 굴리던 형가는 태자에게 말했다.

“지금 진왕은 번장군을 찾기 위해 현상금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 번장군의 머리를 진왕에게 선물로 바친다면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번장군이란 진왕에게 미움을 받다가 연나라에 망명해 있는 진나라 장수 번오기(樊於期)를 말한다. 형가의 계획대로 태자는 번오기에게 사정을 말하고 자신의 박정함을 사과하자 번오기는 기꺼이 제의를 받아들여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형가는 번오기의 머리를 뺀 뒤 연나라 남쪽 땅의 지도와 함께 싸서 들고 진나라로 들어갔다. 지도 안에는 독을 바른 비수(匕首)를 감추어 넣었다. 진왕은 번오기의 목뿐 아니라 연나라 땅 일부를 내놓겠다는 문서까지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사신의 알현을 허락했다.

진왕은 번오기의 머리를 한쪽에 밀어놓고는 천천히 지도를 펼쳐보았다. 돌돌 말린 지도가 풀리자 마지막에 시퍼런 비수가 땅에 떨어졌다. 도궁비현(圖窮匕見)이었다. 형가는 재빨리 비수를 집어들고 진왕에게 다가갔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잡혀 살해되고 말았다. 충신 형가의 모사(謀事)가 성공했다면 역사는 크게 바뀌어 전개되었을 것이다. 진왕은 얼마 뒤 저 악명 높은 진시황(秦始皇)이 되었기 때문이다. Ⓢ

# 호국의 얼이 깃든 **진주성**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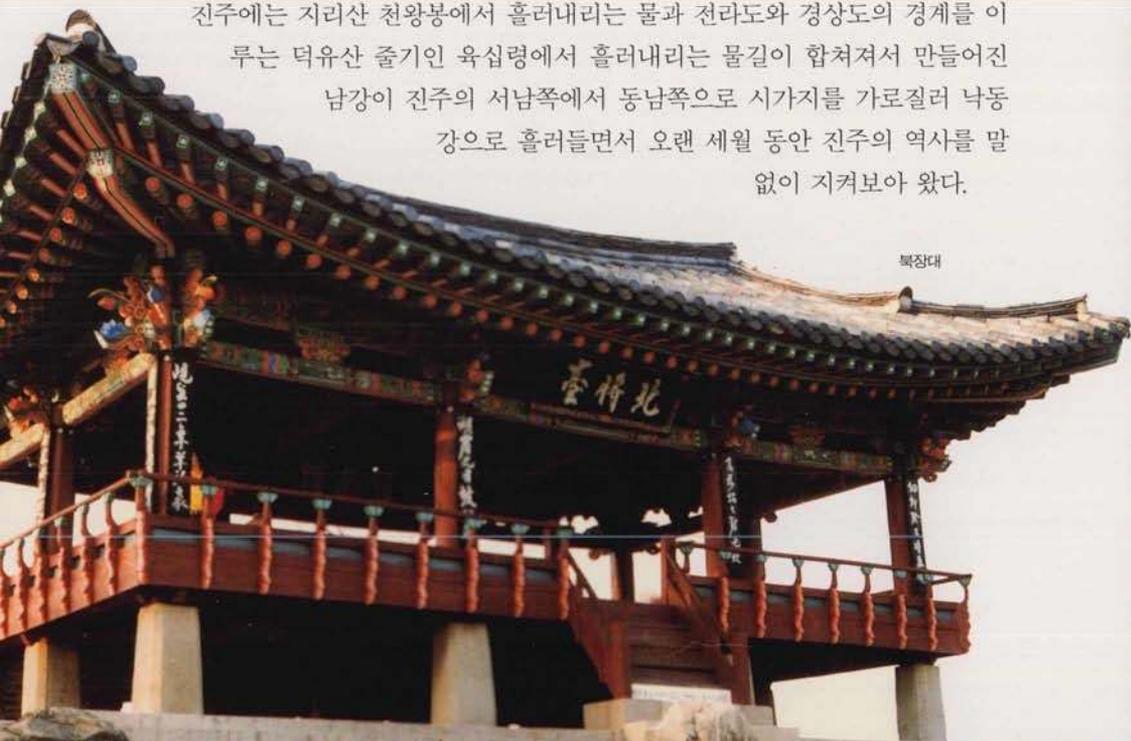
“진주라 천릿길”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진주(晋州)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서울에서 자그마치 434km나 떨어져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지도 하다. 정말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여 진주를 향하다 보니 여간 먼 길이 아님을 느낀다. 서부 경남의 중심지이며 우리 공군의 요람인 교육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곳도 바로 진주이다.

진주는 지리산의 끝자락을 마무리하는 지역이다. 큰 산의 끝자락이니 지리산이 생성된 후 마지막 지각 활동으로 생겨난 것처럼 높은 산은 없고 겨우 평지를 면한 낮은 야산이 군데군데 남아 지리산의 줄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 지리산의 끝자락에 자리잡은 가야의 후손

진주에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덕유산 줄기인 육십령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남강이 진주의 서남쪽에서 동남쪽으로 시가지를 가로질러 낙동강으로 흘러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진주의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아 왔다.

북장대



성벽을 따라 한바퀴를 돌면 진주 시가지의 모습은 다 구경하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진주성은 진주 시내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진주 전역을 다 내려다볼 수 있으니 한 지역을 담당했던 성으로서도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진주는 남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시내 중심가의 남강변의 낮은 야산 위에 진주성이 자리잡고 있다. 시내 중심가의 낮은 야산이다 보니 진주성의 성벽을 따라 한바퀴를 돌면 진주 시가지의 모습은 다 구경하게 되는 셈이다. 그만큼 진주성은 진주 시내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진주 전역을 다 내려다볼 수 있으니 한 지역을 담당했던 성으로서도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원래 진주는 가야의 땅이었던 것을 백제가 거열성(居列城)이라 하고 관리하였으며, 신라 문무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진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고려 성종 때의 일이라고 한다.

진주는 부산포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왜적의 침입을 수없이 받아왔다. 고려 우왕 때 침입해온 왜적을 도순찰사 배극렴(裨克廉)과 병마사 유익환(兪益桓)이 무찔러 이기자, 그후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시로 침입하여 노략질을 자행하여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후 이태조가 계비인 강씨의 고향이 진주라 하여 진양대도호부(晉陽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1896년 경상도를 남북 2도로 나눌 때 진주는 경남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고, 관찰사가 진주에 있어 경남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으나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이 교통의 편리함을 들어 1925년 4월 1일 도청을 부산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후 1949년 광복절에 진주시가 되었으며, 1995년에는 진주시 주변의 진양군을 통합하여 여전히 서부 경남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다.

## 논개의 의로운 죽음, 그 호국의 역사 현장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는 진주성 주변을 돌아  
진주성의 매표소 앞에 서면 시인 변영로(卞營魯)의  
'논개(論介)'라는 시비를 마주하게 된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래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리...

진주하면 '천릿길'이라는 말 외에도 '진주 기생  
논개'가 떠오른다. 진주 기생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는 알 수 없으나 논개가 진주 기생의 기개를 대표  
하였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그 당시의 기  
생, 특히 관에서 양성한 관기(官妓)는 요즘 술집에  
서 시중드는 여인들이나 환락가의 여인들과는 달  
리 풍류를 익히고 글과 시(詩)를 할 줄 알아야 하  
며, 귀중한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 또한 철저히 해야  
했으니, '기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요즘과는  
사뭇 다른 의미였다.

왜장 에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가 진주성  
싸움에서 이기고 자축연을 열어 승리를 축하할 때,  
논개는 미리 열 손가락에 가락지  
를 끼어 깎지킨 손이 빠지지 못하  
도록 하고는 왜장을 꺼안고 정말  
이지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남  
강의 물결 위로 몸을 던졌다. '양귀  
비꽃보다 더 붉은' 호국 충절의 마음

왜장 에야무라 로쿠스  
케(毛谷村六助)가 진주  
성 싸움에서 이기고 자  
축연을 열어 승리를 축  
하할 때, 논개는 미리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어 깎지킨 손이 빠지  
지 못하도록 하고는 왜  
장을 꺼안고 정말이지  
'강낭콩 꽃보다 더 푸  
른' 남강의 물결 위로  
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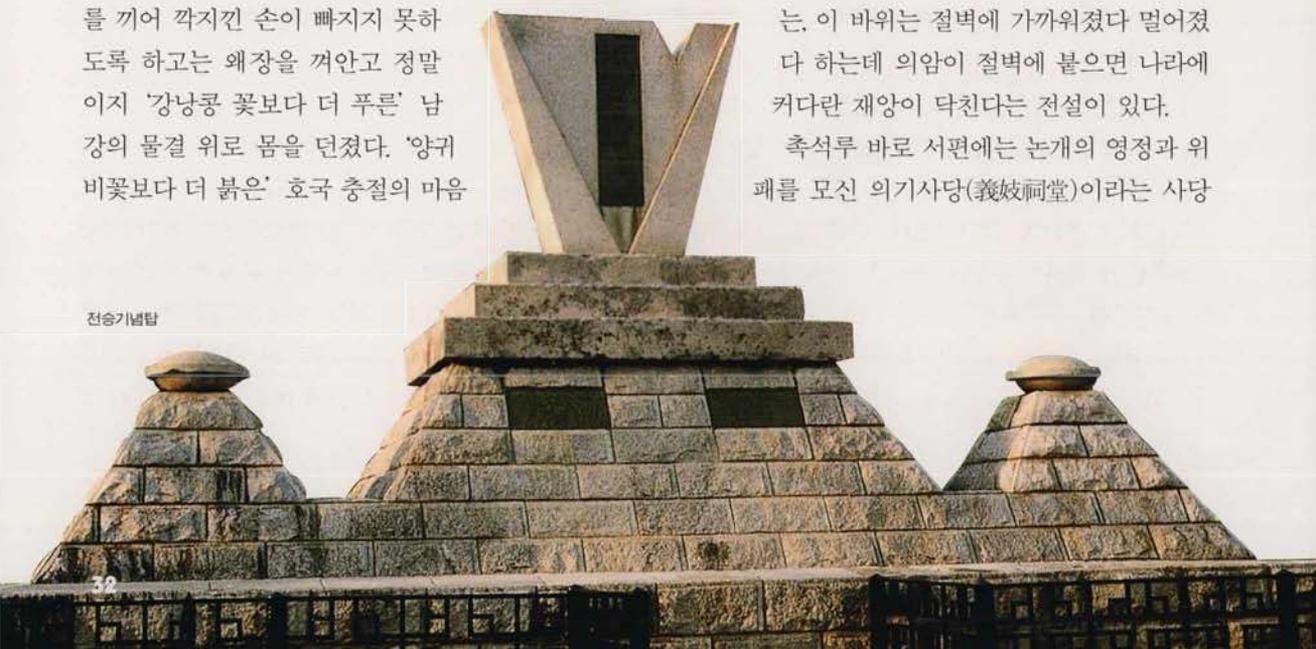
축석루와 의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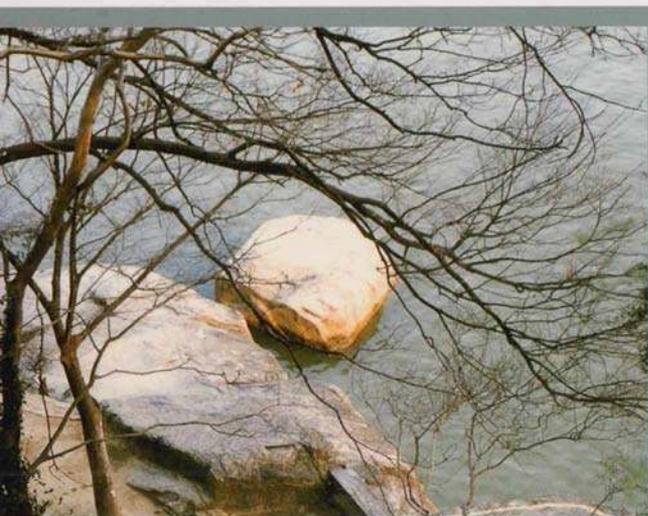
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왜군에게 조선 여  
자의 기개와 무서움을 보여준 의기가 아닐 수 없다.

축석루의 밑 성곽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 그 문을  
통하면 논개가 왜장을 유인해 함께 투신했다는 남  
강가에 있는 바위로 내려갈 수 있다. 원래는 위암  
(危岩)이라고 하였으나 정대룡(鄭大隆)이라는 사  
람이 논개의 충절을 찬양하여 바위에 의암(義岩)이  
라고 새김으로써 그후 의암으로 불리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바위는 절벽과 약 1미터 정도 약  
간 아래쪽에 떨어져 있어, 건너갈 때는 쉽게 건너갈  
수 있으나 돌아올 때는 위로 건너뛰어야 하기에 조  
금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 하나  
는, 이 바위는 절벽에 가까워졌다 멀어졌  
다 하는데 의암이 절벽에 붙으면 나라에  
커다란 재앙이 닥친다는 전설이 있다.

축석루 바로 서편에는 논개의 영정과 위  
패를 모신 의기사당(義妓祠堂)이라는 사당

전승기념탑





논개는 의암에서 직장을 꺼내고 남강에 몸을 던졌다

에,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화백이 그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흰칠한 용모의 논개 초상화가 있는데, 한동안은 이당이 친일 부역 화가라는 전력으로 논개의 숭고한 민족혼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철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진주성, 임란 3대첩으로 빛나는 격전장

임진왜란의 3대첩은 권을 장군의 행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다. 1592년 김시민 장군은 주변의 모든 성이 왜적에게 함락당하였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 왜적을 물리치고 성을 지킴으로써 왜적이 전라도를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진주대첩이다.

1차 침공에 실패한 왜적들은 이듬해인 1593년 6월 왜군을 총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고 치열한 격전을 벌였는데, 이 공격으로 진주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으며, 이때 성 안의 6만여 명이 끝까지 싸우다 모두 목숨을 잃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사람들의 충의를 새긴 비가 축석정충단비(矗石旌忠壇碑)로, 이 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생각지도 않았으니 어찌 하늘이 주는 복이 이리도 약할지고…”라는 말로 끝맺고 있어, 왜적의 침입에 대한

아픔과 더불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는 글로서 <구운몽>의 작가 김만중 등 3명이 비문을 지었다.

진주성에는 북장대와 서장대, 그리고 남장대의 역할을 하는 축석루가 있다. 장대(將臺)란 전시에 지휘관이 전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사방이 탁 트인 곳을 말하는데 진주성의 장대에서는 진주 시내 어느 곳이고 다 내려다볼 수 있다.

진주성은 임란 이후 허물어진 상태로 많은 가족들이 들어차 있던 것을 1979년부터 민가를 성의 외곽으로 이주시키고 새롭게 단장을 하였으며, 6·25 때 불타 없어졌던 축석루도 복원하여 오늘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성내에는 국립진주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박물관은 작고한 건축가 김수근의 설계로 지어진 건물로 그 외형은 성의 견고함을 표현하였으며, 주변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건축물로 남아 있다. 또한 가야의 석곽묘(石槨墓) 등 가야 시대의 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가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진주 시가지의 중심부는 아직도 개발을 하지 않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성 주변의 도로에는 고미술품과 골동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많아 술을 산책을 하며 옛것을 구경하는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진주성은 진주 시민의 영원한 휴식처로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며 진주 시가지를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진주... 천릿길이라는 말처럼 먼 길을 어렵게 찾았지만 낮은 구름 아래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그 들판 사이로 수주(樹州) 변영로의 시에서처럼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남강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은 진주 시민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나그네에게도 온화하고 넉넉함을 가득 담아주는 아름다운 풍광의 도시로 진주성과 함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이다. ☺

글·사진/중령 김홍식

# 걸프전의 영웅, 스텔스 전투기

## F-117(Nighthawk)



F-117은 1974년과 1975년중 월남과 시나이 반도에서의 소위 '항공기 대 SAM간의 무제한적 소모전' 이 끝난 지 얼마 후 미국방성이 Lockheed사에 스텔스 기술 시험기 제작을 위한 비밀 연구 과제를 부여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같은 외부의 불연속 부분은 가장자리를 톱니 모양으로 처리하였으며, 조종실의 방풍 유리는 레이더파의 투과를 막기 위해 특수 코팅 처리되었다.

###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최첨단 스텔스기

1977년 비밀 시험 비행 지원 시설 내에서 최초 비행을 실시한 시험기에 부과된 것은 레이더, 적외선, 육안 식별, 음향, 연기, 비행운과 같은 항적의 6개 요소에 대한 실험이었다. 1978년에는 실전 배치형 전투기 개발을 승인하였고, 1983년 10월부터 실전에 배치되었다.

F-117기는 보는 각도에 따라 형체가 다르게 보이는 특이한 모습의 항공기인데, 이러한 형태는 일차적으로 레이더파 반사를 축소시키려는 요구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레이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은 항공기의 아주 좁은 방향으로 집중케 하였다. 공기 흡입구는 전면에 그물망 형태의 격자가 설치되어 흡입구로 들어온 레이더파가 큰 반사를 방지하고 있다. 배기구는 가장자리가 후방으로 뺀어 있어 동체 상면을 따라 흘러온 공기가 섞여 그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 적외선 탐지 장치와 적외선 미사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부 부분에는 레이더파의 반사도를 낮추기 위하여 캐노피 경계선, 엔진 수납구, 기수의 적외선 탐지기와

### 걸프전, 코소보 사태 등에 참전

F-117에 탑재 가능한 무장으로는 AGM-65 영상 적외선 유도 공대지 미사일, 페이브 웨이(Pave Way II · III), GBU-27, B61 자유 낙하 핵무기, 그리고 HARM 대레이더 미사일 등이 있으며, 최대 무장 탑재 능력은 1,800kg으로 추정된다.

현재 F-117은 미 공군에서만 59대를 발주하여 55대를 운용중에 있으며, 지난 1988년 12월 파나마 침공 작전시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그후 1991년 걸프전에는 2개 대대가 참전하여 주요 목표 공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1997년 사막의 여우 작전에 투입되었고, 현재 코소보 사태에도 참전중에 있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 주요 성능 및 제원

최대 속도 : 561kts(1,040km/h),

전투 행동 반경 : 806km(500NM), G제한치: 6G,

최대 이륙 중량 : 52,500파운드(23,814kg)

# 5월은 일하기 좋은 달

비 온 끝에 벌이 나니 일기도 청화(淸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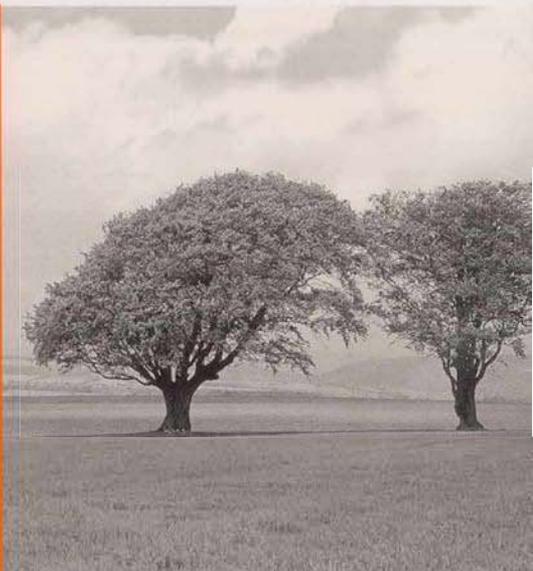
뻗새 자로 울고...

꾀꼬리 소리한다

##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의 계절

농가월령가의 노래처럼 날씨 좋고 새가 우는 5월이 되면, 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었다는 죄(?)로 아버지의 불호령에 눈물을 찝끔거리던 정(情) 많은 나의 누님이 생각난다.

5월의 절기로는 6일이 입하(立夏), 21일이 소만(小滿)이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 무렵에는 나뭇잎이 점차 짙은 녹색으로 바뀌면서 아카시아꽃이 피고, 소만(小滿)에는 밤나무꽃이 활짝 피어 꿀을 채취하려는 양봉업자들이 한참 바빠질 때다. 이때쯤 모내기를 마친 고향 어른들이 동구나무 아래 모여 시절 음식으로 장미꽃으로 만든 떡[花煎]을 기름에 지져 먹고, 삶은 미나리를 파에 섞어 만든 회를 술에 곁들여 먹곤 했다.



##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달

한 연구에 의하면 기온이 18℃, 습도가 60%일 때 일의 능률이 가장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5월의 '날씨'는 평균 16~18℃로 온화한데다 60~110mm의 비가 내리니(제주 제외), 5월은 일의 능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달인 것이다. 따라서 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가장 좋은 철이다.

하지만 내륙 지방은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며 서해안에도 해무(海霧)가 끼기 시작하므로 경계가 필요한 달이기도 하다. 또한 하순경에는 기압골에 동반된 우박과 돌풍 현상이 가끔 나타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정의 달이며 연중 최고의 날씨를 보이는 5월, '두루 춘풍(春風)'이란 속담처럼 따뜻한 봄바람의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자, 5월은 열심히 일하는 달이다. ☺

73기상전대 총령 반 기 성

# 디지털 카메라로 즐기는 사진 촬영

8전비 소령 이 영 권

## 디지털 카메라는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가족들의 사진집을

제작하거나 기타 생활

속에서 사진이 필요한

곳이면 장소와 방법의 구분

없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서울 에어쇼에서  
블랙이글 홍보팀이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가 일반화된 후 디지털 (Digital) 기술이 비껴간 곳은 거의 없다. 사진 분야도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과 디지털 카메라의 성장으로 커다란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실용과 예술의 양대 영역을 동시에 넘나드는 디지털 사진의 세계. 컴퓨터 기술이 열어준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자.

## 첨단 디지털 기술이 카메라 속으로

에어쇼팀 블랙이글의 PC통신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지난 '98 서울 에어쇼 기간 동안 행사장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심한

끝에 블랙이글의 시범 비행 사진을 행사장 홍보 부스에서 직접 전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보기로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디지털 카메라는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가족들의 사진집을 제작하거나 기타 생활 속에서 사진이 필요한 곳이면 장소와 방법의 구분 없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그래픽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경우 그 응용은 무궁무진에 가깝다. 인물 사진의 경우 주름살도 줄이고, 살찌고 둔한 모습은 조금 가름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결혼 사진에서 신부가 눈을 감은 경우 사진사는 담담하게 총무로의 전문가를 찾아가 신부의 감은 눈을 뜨게 한다.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디지털 사진은 쥘라기의 공룡을 되살리듯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 디지털 사진의 무한한 가능성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서 만족할 만한 사진 작업을 하기에는 해상도 면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 카메라에 장착하던 전문적인 수준의 렌즈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의 경우 가격만도 2천만 원이 넘는다. 아직은 서민들과는 인연이 멀다. 따라서 아날로그 사진의 고해상도와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명하게 접목하여 조화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작업이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새로운 창조적 영역이 개척되어가고 있다.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그 시대의 문화를 적절히 표현해내는 도구가 필요하며, 디지털 사진은 그 가운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5월의 화창한 모습을 이번 계절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표현해보자. 봄철 햇살이 더욱 빛날 것이다.

## 원본 필름을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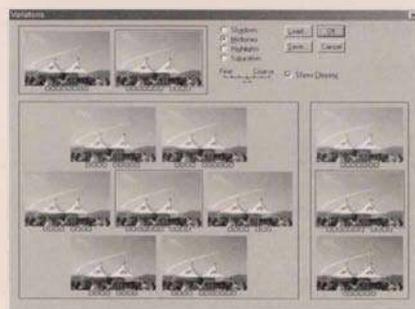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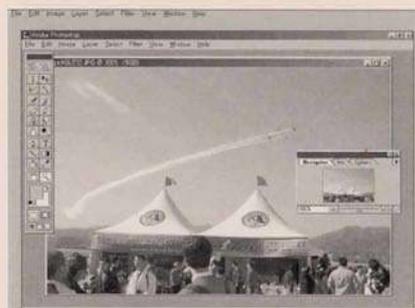
소장하고 있는 필름(사진 포함)은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변색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필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컴퓨터용 파일로 만드는 것이 최상책이다. 전문점을 찾을 경우 고가의 스캐너를 써서 30메가 정도의 대용량 파일로 만들어주는데, CD-ROM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힌다. 이 경우 슬라이드나 네거티브나 1장당 4,000~8,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 스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밖에 코닥에서 만든 코닥 포토CD에 기록하는 방법도 있다. 1장당

1,000원 꼴로 가장 저렴하며, 각 사진마다 홈페이지 제작용, 대형 사진용 등 5가지 크기로 구분하여 꺼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PC의 메모리가 충분하더라도 수십 메가나 되는 파일들은 읽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크기별로 분류된 사진 파일은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코닥 포토CD는 CD-ROM 1장에 18MB 크기의 사진(2048픽셀 × 3072픽셀)을 무려 100장이나 저장할 수 있다. 블랙이글팀 사진은 모두 코닥 포토CD에 담겨 보관되고 있으며, 이를 출력할 경우 40' × 50'의 대형 사진도 무리없이 만들 수 있다. CD-ROM을 만들고 홍보물을 인쇄하는 모든 일은 포토CD 한 장이면 해결된다.

## 디지털 카메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디지털 카메라는 이미 600만 화소의 전문가용이 개발되어 있으나, 요즘 많이 나오는 100만 화소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광학적인 면이나 전자기계적인 면보다는 편의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건전지의 사용량도 무시할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PC를 이용해 편집하는 과정

요소다. 특히 사진을 찍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선별하는 등 LCD 액정 화면을 자주 보게 되면 건전지의 소모는 현격히 증가한다.

또한 찍은 사진을 PC에 전송하는 과정도 유의해야 한다. 카메라에서 직접 플로피 디스켓으로 저장하는 모델도 있지만 주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 PC의 시리얼 포트를 쓰는 관계로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메모리 카드의 사진 파일을 PC의 하드디스크로 옮기는데 거의 30~40분이나 걸렸다. 전원과 메모리 카드, 전송 속도 문제 등을 검토한 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 아마추어를 위한 사진 촬영 TIP

- 필름 1통에서 1장 건지면 성공이라는 대범함이 만족스런 작품을 낳는다.
- 필름 몇 장 남았다고 현상을 미루지 말라. 며칠 미루면 색이 바랄 수도 있다.
- 플래시는 주로 자연스러움을 잃게 할 뿐이다. 어두우면 플래시를 켜야 된다는 생각을 고정 관념화할 필요는 없다. 단, 카메라 렌즈 직경이 충분히 넓은 경우에 해당된다.
- 노출보다 중요한 것은 초점이다. 노출이 잘못되면 현상 과정에서의 증감 처리와 인화시 시간 조절을 통해 보정되지만 흔들리거나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은 아무런 답도 없다.
- 작품성에 연연하지 말라. 자기가 뭔가 보고 느낀 그 장면이 담겼으면 그만이다.
- 현상소는 가급적 한 곳을 정해서 단골이 되는 게 유리하다.

# 퍼듀대학에서 일어난 일들

전투발전단 중령 차 중 환

수업을 같이 듣고 연구도 같이 하면서 학구적인 면에서도 그들에게 뒤질 것이 없으니, 자연스레 그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좋지 않은 군인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퍼듀대학교는 한국에 졸업생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내 공대(工大)로서는 명문에 속하는 학교이다.

## 낮선 땅에 홀로선 늦깎이 유학생

퍼듀(Purdue)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입학 수속을 마치고 숙소를 정하고 난 뒤 전기공학부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대략 20여 명 정도가 모였다.

대개가 한국에서부터 동문들로 구성된 그들은 서로 통하는 데가 많고 자료 교환도 잘 이루어졌지만, 유독 나 혼자만 나이도 들었고 동문도 없이 완전히 외톨이 신세였다. 환영회 내내 우리 가족만 등그러니 서서 콜라를 마시며 타국에서의 고독함을 맛보아야만 했었다.

그들에게 필자는 달갑지 않은 존재임에 틀림없었다. 공부라면 자기들의 영역인데 군인이, 그것도 공부하고는 한참 떠나 있다가 무슨 이유로 나이 먹어 들어와 제대로 할까나 싶었을 것이다.



PKA회에서 민찬전 기념촬영(오른쪽에서 네번째가 필자)

그래서 필자는 그들이 주목하는 것을 의식했다.

퍼듀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들에게 나는 시계추로 통했다. 출근하는 것처럼 항상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제시간에 내 연구실을 지켰다. 대개 유학생들은 시간 관념이 애매하지만 나의 이러한 시간 관념은 그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았다. 수업을 같이 듣고 연구도 같이 하면서 학구적인 면에서도 그들에게 뒤질 것이 없으니, 자연스레 그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좋지 않은 군인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점차 그들이 필자를 큰형으로 여기고 북도에서 만나면 얼마나 인사를 깎듯하게 하는지 타국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길 정도였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같이 동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 퍼듀대학에서 느낀 기쁨과 보람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 주변에는 가히 작은 외교장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갖가지 국제 행사가 많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한국 학생회 (PKA : Purdue

Korean Association)가 있었지만 활동이 미미하여 각종 행사마다 한국 코너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에게 한국 학생회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선 그 동안 없었던 'PKA 회칙'을 정하고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후 각종 국제 행사에는 PKA 이름으로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행사 때마다 한국 코너는 제일 인기 좋은 코너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각국 음식을 소개하는 'International Food Bazaar'에서는 김치를 비롯한 갖가지 한국 음식이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행사 때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 분위기를 한껏 북돋워 주었던 일단의 여학생들이 매우 고마웠다.

한 번은 원자력 공학부에 게시는 한 한국인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분은 늘 PKA를 지원해 주시고 필자가 회장일 때 PKA 고문을 하셨던 분이시다. 한 한국계 여성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는데 18여 년 전에 헤어진 고국의 가족을 찾고 싶다는 내용이였다. 옛 주소는 모르고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의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고모와 고모부가 옛날 경남 마산에



서 교사직에 있었다고 기억하여 그것을 단서로 하여 가족을 찾기로 작전을 세웠다. 모든 한국 학생들에게 E-mail을 발송하여 혹시 고향이 마산이거나 마산에 연고지가 있는 학생은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즉각 옆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 처가가 마산이라고 하여 그 학생의 장모님께 추적을 부탁드렸다. 그 장모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불과 이틀만에 한국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유학 중 보람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

### 나를 지원한 공군 위해 기여할 터

퍼듀에서 유학 생활을 한 기간은 나의 군생활 중에 실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부분이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있었으나 정작 실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완전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가 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렸다. 조종사가 사소한 기재 취급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Check List를 만드는 것처럼

세밀한 점검표를 만들어 실행했는데, 이는 내가 있던 실험실 요원 전부에게 전파되어 실행되었다.

실험이 무르익어 갈 무렵 필자는 실험 조건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이틀씩을 꼬박 Optics Table 위에 엎드려 실험을 계속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자신이 있던 나도 담에 걸려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으나, 그렇다고 또 두려워할 것도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분석하고 고쳐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필자가 하고 있는 업무의 해결 방안을 배워 온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어려운 학위 과정 속에서 내 아내의 내조는 절대적이였다. 부족한 생활비로 가게를 꾸려나가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에 대한 이중 교육(한국·미국 교육)을 또한 감내해내야 하는 고통이 보통은 아니었다. 필자는 지금도 아내의 내조에 감사한다.

필자는 공군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공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군에서 혜택을 받은 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공군에, 나아가 조국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

# 경제난, 우리가 극복한다

군수사령부 중위 윤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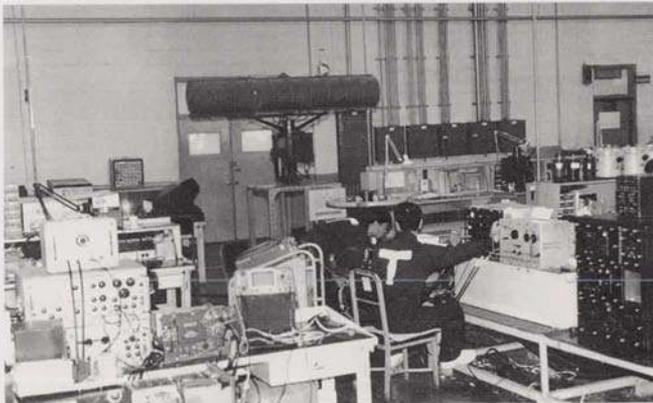
지난 '97년말 우리 나라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의 한파는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으며, 부도 업체를 속출케 하는 등 엄청난 고통과 파장을 몰고 왔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영향은 민간뿐 아니라 우리 군에도 예외 없이 작용하여 각종 예산과 경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전과 다름없는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특히 공군의 경우 무기 체계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도 높아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공군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는 경제 위기의 최일선에 서서 '효율적 자원 관리'를 통한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 해외 도입 물자 예산 절감

공군 군수사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펼치는 여러 가지 시도는 크게 외화 소요 사업, 에너지 절약, 경상 경비 절약, 근검 절약의 네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외화 소요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창안 활동, 창 능력 개발과 도입 물자의 수송비 및 군수 예산 절감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해오고 있다. 사령부는 부대 특성상 해외 도입 물자가 많아 다른 어느 부대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해외 도입 물자의 경우 불요불급한 물자의 도입 신청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미 도입된 물자에 관해서는 예산 집행 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해나가고 있다. 또한 해외 군수 물자를 국내로 도입할 경우 긴급한 물자를 제외하고 도입 경로를 공수에서 해상으로 바뀌어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있다.



83창 장비들이 방공포 피아식별 레이더 창정비 능력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 창안 및 창 능력 개발 활성화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기술력을 신장시켜 무기 및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각종 창안 활동과 창 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지난 '98년 한해 동안에만

국산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김군무원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해 채택된 창안들의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355억 원이나 되어 사령부의 활발한 창안 활동을 짐작케 한다.

또한, 종전에 민간 및

에너지 절약, 폐품 및 피복 재활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류 절약을 위해 차량 5부제 운동, 과속·급정지 자제, 과다 공회전 방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후 수도관과 전기 장비를 전량 고효율 장비로



8차 창 재운기·윤종권 군무원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직접 제작한 증폭 시험기를 점검하고 있다.



피복 재활용 센터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 작업

유도 미사일 발사 장치 점검기를 비롯한 총 26건의 창안이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에 채택되었으며, 81창에 근무하는 김종군 군무원(39세·6급)은 국방부 창안상 동상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사령부의 창안에 대한 의지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우리 공군의 경우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창안을 통한 부품의 조기

해외 창에서 정비되던 품목에 대해서 사령부 예하 창의 정비 능력을 집중 개발하여 81창 71건, 83창 157건 등 총 265건의 창 능력을 구비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사령부는 군수 예산 절감과 각종 기술 개발 이외에도 전등 하나 물 한 방울을 아끼는 절약 정신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바꾸기로 했다. 또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지,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민간에 매각 1천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기지 내에 피복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여 지난해에만 330여 벌의 피복을 재활용하였다.

## '99년도 추진 목표와 실적

사령부는 '99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도



◀애로 수리부속 견본 전시회>에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항공기 부품을 둘러보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무기 체계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도 높아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공군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는 경제 위기의 최일선에 서서 '효율적 자원 관리'를 통한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높은 경제난 극복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중에 있다. 그리하여 에너지, 물자, 근검 절약 등 4개 분야 총 15개의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서별 책임 아래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4분기가 지난 현재 유류는 1만 6천 갤런을 절감하여 목표치를 3천 갤런 정도 초과 달성하였으며, 신문, 캔,

공병, 피복 등 재활용품은 약 28톤을 수거하여 37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사령부는 1/4분기에 거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에 실시해오던 '부모 실적 장병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오는 중추절을 즈음하여 중고품 재활용을 위한 알뜰시장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농수산물 공동 구매를 통한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시중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으며, 검소한 생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행사 간소화와 계도 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공군 군수사령부 현관에는 "현대전은 군수전이다."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이 말이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전에서의 군수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전장병들은 예산 절감과 비용 절감을 통한 완벽한 군수 지원이 곧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경제난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일념으로 오늘도 경제난 극복이라는 최일선의 전장을 누비고 있는 그들, 바로 공군 군수사령부 장병들이다. ㉠

#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는 알면서도 귀찮아서, 혹은 모르고서 그냥 지나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어려운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175가지 방법

그 동안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실천할 수 있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175가지 국민 생활 실천 사항'을 마련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도 매분기마다 '환경 보전 운동 실천 과제'를 전부대에 하달하여 환경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사항 중에는 원유 수입을 줄여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분야,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이 풍부한 국가가 되기 위한 물 절약 분야,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여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폐기물 감축 분야,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과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자연 환경 보호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은 실천이 모여 엄청난 절약 효과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쌀 씻은 물로 그릇을 씻은 후 물을 받아서 화분이나 정원에 뿌려줄 경우 연간 8,50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70억 원과 하수처리장 설치비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20리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한 달에 한 장만 절약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면 연간 종량제 봉투값 470억 원, 쓰레기 처리 비용 1,8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쌀 씻은 물로 그릇을 씻은 후 물을 받아서 화분이나 정원에 뿌려줄 경우 연간 8,50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70억 원과 하수처리장 설치비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시중의 리필 제품들을 사용하면 연간 41,000톤의 포장 쓰레기가 줄어들고 기업도 약 870억 원의 포장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으므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약 생활 실천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전국민이 모두 동참했을 때는 엄청난 절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절약 생활에 장병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

공군본부 환경과





# 낮익은 이야기의 품격있는 포장

## 정동극장 <어머니>의 공연을 보고

한국예술연구소 연구위원 이영미

굽이굽이 살아온 일생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막론하고 한 편의 소설이다. 어머니들이 늘상 이야기하지 않던가. 그분들이 살아온 걸 소설로 풀면 소설책 열 권은 될 거라고, 궁핍했던 일제 시대, 대동아 전쟁, 해방, 6·25와 피난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난 등등 어느 구석을 보아도 다 연극이 될 만큼 삶 자체가 격동적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은 아주 흔하고 그래서 진부해지기 쉽다. <아씨>, <여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육남매>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텔레비전 드라마가 생긴 이래 줄곧 이 이야기를 사골 우려먹듯 하고 있던 않았던가.

###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소설 같은 인생

정동극장이 기획한 <어머니>(이윤택 작·연출)는 어머니의 일생이라는 소재의 대중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진부함을 피해간 수작이다. 연극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에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의 요소들을 남겨놓은 채 과장된 신파성을 제거함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흔히 드러나는 진부함을 극복하고 있다.



작품의 큰 흐름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함께 사는 69세의 황일순이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고 회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날 밤 죽은 남편 돌이가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와 어머니에게 이제 저승으로 함께 가자고 하고, 어머니는 아직 한을 못 풀어 갈 수 없다고 거절한다. 다음 날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고향 마을을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하나하나 풀려간다.

밀양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 딸로 자란 일순은 같은 마을 양산복과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부산 출신 율패인 돌이에게 논 서 마지막에 팔려 시집을 간다. 고향 마을 조무래기들과 노는 장면, 시골 소년 양산복과의 애뜻한 사랑 장면은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아련하고 아름다우며, 돌이의 조랑말에 실려 사랑하는 양산복이 감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계속 뒤돌아보며 눈물 흘리며 시집가는 장면은 가슴 아프다. 이 어린 시절 장면은 대사들이 살아 있어 더욱 좋다.

“산복아, 니 오늘밤에 날 보쌘해 가라. 집이 가서 보자기 가아와 날 빨리 싸가란 말이다. 이 빙신아!”

“내가 그렇게 길쌘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애매는 이불한 채 안 해주고 날 시집 보냈다.”

“난 가매 타고 시집가고 싶었는데 신랑 조랑말에 얹혀서 갔다.”

이런 생생한 대사의 맛이 작품의 품격을 높여준다.

### 노련한 작가·배우가 만든 따뜻한 작품

얕은뱅이 시어머니와 방 한 칸만 있는 집에서 고생고생하고 여덟 달 만에 첫 아들을 낳고, 그 동안 첫사랑 산복은 징병에 끌려가 죽어 돌아온다. 해방 후 청진으로 가 웬만큼 살게 되자 전쟁이 터졌고 피난통에 남편과 헤어진다. 생전 처음 구경도 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여보지만 추운 겨울에 아이가 죽게 된다. 이 장면이야말로 이 작품의 절정부에 속한다. 심한 열에 들떠 죽어가는 아들을 싸안고 어머니 일순은 옛날 이야기투로 산복과의 사랑 이야기를 해

준다. 이야기를 채 듣지 못하고 아이는 숨이 넘어가고, 어머니는 “야야, 눈 좀 떠봐라. 어무이 이야기 듣니? 날 낳아준 아버지 이야기야!” 하며 통곡을 한다. 결국 그 첫 아이는 첫사랑 산복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던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당당히 제삿밥도 못 얻어먹는 첫아들을 위한 진혼굿이 펼쳐지고,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리고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편안히 저승으로 간다.

작가이자 연출자인 이운택은 차갑고 도시적인 질감의 작가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의 작풍치고는 따뜻하다. 어머니라는 소재 덕도 있지만 김명곤이 연출했던 초연의 흔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 작품에 출연하겠다고 한 손숙은 주인공의 펄퍼짐하고 수다스러운 성격과는 잘 맞지 않았지만, 중반 이후 분위기를 몰아가는 장면에서 노련한 연극 배우다운 힘을 보여주었다. Ⓛ



돌이의 조랑말에 실려 사랑하는 양산복이 감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계속 뒤돌아보며 눈물 흘리며 시집가는 장면은 가슴 아프다. 이 어린 시절 장면은 대사들이 살아 있어 더욱 좋다.

# 존 와든의 전략적 마비 이론

##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8)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연합군 항공력에 적용된 4단계 전역 구상의 주창자로서 널리 신임과 인정을 받고 있는 현대 항공 전략 사상가가 있으니 바로 존 와든(John Warden)이다. 지난 호에서 소개한 보이드의 전략적 마비 이론은 과정적이고 심리적인 마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와든의 이론은 구체적이며 물리적 마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와든은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F-4, F-15 등 3,000여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전투 조종사로서 다양한 참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의 항공력에 대한 이론의 기초는 Nation War College에서 닦아졌는데, 학문적 성과는 <항공 전역(The Air Campaign)>으로 집대성되었다.

### 존 와든의 5개 전략 동심원 모델

하나의 체계로써 적을 분석하면서 와든은 모든 전략적 목표물들은 5개의 구성 요소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장 내부에 위치한 지휘부이다. 지휘부 바깥으로 체계의 작동에 있어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유기적 필수 요소, 기반 시설, 인구 집단, 야전 군사력 등이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동심원 내에는 동력의 중심을 나타내는 전략적 중심이 존재한다. 만약 파괴된다면 동심원의 기능은 정지되며, 그 중요성에 따라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와든은 각각의 동심원 내의 중심을 보다 정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다시 각각의 동심원을 5개의 하위 동심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연속적인 동심원 분석은 전략적 중심이 파악될 때까지 지속된다.

5개 동심원(Five Strategic Rings) 모델의 핵심적인 주제는 전략 수립시 최우선적인 관심을 적 지휘부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가지는 의미는 지휘부의 파괴가 체계의 전체적인 물리적 마비를 가져오는 물론, 여타 동심원의 전략적 중심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은 부분적인 전략적 마비뿐 아니라 지휘부에 건지기 힘든 심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미군의 전략 계획자들이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당시 와든이 속해 있던 펜타곤 공군참모부 내 Checkmate 분과는 항공 전역 계획을 발전시켰다. 적 전략적 중심 타격의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와든은 전략적 항공 전역의 개발을 위한 5개 동심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와든은 이것을 “이론이 실제에 앞서며, 실제가 이론을 입증하는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사막의 폭풍 작전 이후 와든의 전략적 항공 이론은 더욱 정밀해졌다. 와든은 21세기에 있어 전쟁의 승리는 동심원의 병행 공격과 내·외부(중심 및 연결점) 공격 원칙에 어느 정도로 충실하나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보이드와 와든, 이 두 명의 공군 출신 사상가는 20세기 항공력 발전에 분명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들의 업적은 전략적 항공 이론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 놓았다.



초점을 맞추었다.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인 보이드와 와든의 이론은 다른 모태로부터 태어난 쌍둥이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드와 와든, 이 두 명의 공군 출신 사상가는

주장하였다.

### 상호 보완적인 보이드와 와든의 이론

사실 어떤 이론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르지는 않다. 실제로 보이드와 와든의 마비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보이드가 적보다 빠른 작전을 주장하는 데 반해 와든은 첨단 기술을 통한 전략적·작전적 우위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이드가 적이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유동적이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와든은 적의 주요 전략적·작전적 요충지에 대한 병행 공격을 주장하였다. 또한 보이드가 적의 'OODA 과정'에 대한 작전을 통해 지휘 통제 과정을 와해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와든은 5개 고리의 상호 의존적 체계에 대한 공격에

20세기 항공력 발전에 분명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들의 업적은 전략적 항공 이론의 근본적 변화-경제적인 개념을 통한 마비 이론으로부터 통제 개념을 통한 마비 개념으로-를 이루어 놓았다.

보이드와 와든의 이론은 서로를 보완하며 통제전을 통한 전략적 마비 이론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전략적 마비 이론은 전쟁 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미래 정보 시대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사상이 될 것이다. 보이드와 와든이 주장하는 통제전을 통한 전략적 마비의 추구는 우리 공군인들이 준비하는 미래 항공력의 조직, 준비, 적용에 대한 최선의 방책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 건전한 회식 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엄정한 군율에 의해 유지되는 특성에 따라 상하급 자간 또는 동료 상호간 격려를 위한 회식(음주)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음주로 각종 사고가 빈발하여 건전한 회식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불건전한 회식 문화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회식 문화를 살펴보면, 우선 상급자 참석 회식시 고급스러운 장소와 메뉴를 선정하는 경향, 회식을 자주 해야 부대(서)원간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 술을 잘해야 호방한 성품이라는 평가, 체육 활동 후의 습관적인 음주 관행, 강제적 건배 행위나 2,3차까지 연장하는 등의 폭음 조장 음주 행태, 음주 운전에 대한 무감각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범법 행위라는 의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주위에



서 강력 제지하기보다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해자 인권 및 잠재적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수차 제기되었음에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 건전한 회식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지침

첫째는 목적과 명분 없는 무분별한 회식을 지양하는 것이다. 특히 전투 체육 행사 후 습관적인 회식 행

위가 성행하므로,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소속장 주관 종례 후 퇴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서원 전속, 진급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부대 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점심으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가 요구된다.

둘째, 술잔 돌리기, 폭탄주 등 반강제적 음주 권장 행위를 근절하고, 어떤 회식이든 1차로 끝내는 건전한 회식 습관을 배양하여야 한다.

셋째, 회식시 자가 차량 운전을 근절하고 운전자 지정을 의무화하여 최선임자가 미리 지정한 운전자에 한해 일체의 음주를 금지시키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즉 간경련, 심근경색, 고혈압, 위궤양, 각종 암 등의 질환 유발, 기억력 감퇴 등 음주의 폐해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내일 위한 재충전의 기회

그릇된 회식 문화는 건전한 군 복무 자세를 흐트림과 동시에 상하 동료간 인간 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다음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전장병들은 다같이 기쁨과 동시에 서로의 전우애를 다져 내일의 근무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본래의 건전한 회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편집실

# 군생활 속에서의 가르침과 보람

10전비 병장 정 현 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항상 이런 대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인마다 해결 방법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신병 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풋내기였다. 그저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했던 내게 처음 다가온 사람은 한 기수 선임병이었고,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설명해 주고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다.

처음 해보는 것을 하려니 난 항상 잘하질 못했고, 그러는 내게 그 선임병은 늘 웃으면서 어떤 것이든 다시 가르쳐 주곤 했는데 웬지 나는 그것이 짜증나고 싫었다. 그러나 막상 지금에 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그 선임병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반대로 나에게서는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를 느끼곤 한다.

입대를 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듣게 된다. 군생활에 관한 것, 훈련소에서 필요한 것 등등. 수많은 얘기를 들지만 그 당시 나에게서는 별로 특별하게 생각되진 않았다. 그러나 막상 입소를 하고 군생활을 해나가다 보니 그때의 말들이 여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러한 충고와 조언은 왜 해주는 것일까? 자기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려줌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선임병들은 갓 들어온 후임병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준다. 심지어 이불을 펴고 개는 방법까지도 그렇다. 가끔

실수를 하면 꾸중도 듣지만, 어디까지나 서투른 후임병을 위한 마음인 것이다. 후임병은 당시에 서글프고 선임병에 대한 미움도 생기지만, 참고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한 가지씩 배워나간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항상 이런 대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인마다 해결 방법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이다. 알려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꾸준히 참으면서 한 가지씩 배워나간다면 마지막에는 서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마지막 웃음을 짓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배울 것은 많은데 정작 가르쳐 줄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나만 알면 된다는 생각, 배워서 뭐하겠느냐는 생각,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한데 무엇을 배우겠느냐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신뢰와 인내를 상실시키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풍조를 만들어, 알리고 또는 알려주려고 하질 않게 된 것이다.

우리 모두 조금씩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아낀다면 다른 사람 역시 아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씩 우리들 마음 속에서 커져간다면 참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군생활에서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

# 대기병, 그 긴장되는 시작

15촌비 이병 양 성 진

훗날 진정으로 “나는 노력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그 시작부터 편법보다는 정도(正道)를, 요령보다는 부지런함을 기본으로 삼아 하나씩 익혀나가서 성실히 생활해야 할 것이다.

“대기병이에요?”

“정비 특기 있어요?”

처음 15비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오른쪽 어깨의 노란 건장이 유난히 눈에 띄는 듯했고 웬지 다들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한 내 옷의 한 줄뿐인 계급장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 동기들에게 보내는 마음 속의 응원

1주의 교육 후 몇몇 동기들은 소속대로 넘어가고 다른 동기들은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식당에서 간간히 마주치는 동기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에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다.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했고, 얼굴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들이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내 동기들의 모습이었다.

“신병 때는 어딜 가나 힘들겠지. 기운내!”

한마디의 응원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각기 다른 소속대로 넘어가기 전 나중에 웃으며 이병 때의 생활을 이야기하자며 서로 격려하던 동기들, 이제는 모두들 어디 기댈 수도 없는 혼자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수로 혼나기도 하고, 때론 서럽기도 하고, 때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두들 이겨내길 기원한다.

처음부터 위에 서는 사람은 없다.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경험을 쌓아나갔을 때 그 경험을 인정해 주며 비로소 위에 서는 것이다. 힘들 때도 편할 때도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른다. 지나고 나면 모두 한 조각 기억일 뿐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했는가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보낸 시간들은 모두 경험이 되어 줄 것이다.

## 두려움 떨치고 새로운 시작을

훗날 진정으로 “나는 노력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그 시작부터 편법보다는 정도(正道)를, 요령보다는 부지런함을 기본으로 삼아 하나씩 익혀나가서 성실히 생활해야 할 것이다.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보다 새로이 정신을 가다듬자. 이제 나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함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 불안함을 적당한 긴장감으로 바꾸어서 정신을 가다듬어 새롭게 준비함이 필요할 때다.

힘내라. 이등병!! ⚡

MAY

## 5월의 공군 역사

- 5. 1. 제15전투비행단 창설('74)
- 5. 5. 통위부(현 국방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 창설('48)
- 5. 10. 제3훈련비행단 창설('68)
- 5. 14. T-6 건국기 도입 및 명명식('50)
- 5. 15. 제19전투비행단 창설('91)
- 5. 18. 유치곤 대위 한국 공군 최초로 200회 출격기록 수립('53)
- 5. 23. 북괴 공군 조종사 이철수 대위 귀순('96)
- 5. 24. 한국 공군 최초의 유도무기 사이드와인더(GAR-8) 도입('61)
- 5. 25. 광주기지 건설('67)

## 5. 14. T-6 건국기 도입 및 명명식('50)

북괴 공군력이 급격히 증가되자 정부는 미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정부는 국회 및 언론기관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호응을 받아 “우리 비행기는 우리 힘으로 구입하자”는 항공기 헌납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당시 3억 5천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이 헌금으로 캐나다로부터 AT-6 항공기 10대와 0.5인치 기관총 20정, 실탄 5,000발, 1년분의 부속품을 구입하였다. 이 같은 국민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구입한 T-6 항공기 10대의 명명식이 1950년 5월 14일 여의도 기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수많은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항공기 명칭은 국가건설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상징하기 위해 “건국기(建國機)”라고 명명하였다.



## 5. 18. 유치곤 대위 한국 공군 최초로 200회 출격기록 수립('53)

유치곤 대위는 1951. 10. 11. 강릉기지에서 제10전투비행전대가 단독출격작전을 개시할 때 F-51전투기로 첫 출격을 시작한 이래 1953. 5. 18. 2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하고, 휴전시까지 총 203회의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는 한국 공군 출격조종사 가운데 유일하게 200회 이상의 출격기록을 수립한 전투조종사가 되었다.



유치곤 대위

자료 제공 / 공군본부 3급 정영섭

## 항공우주 무기 총람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의 군사 열강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신무기체계 개발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힘쓰는 한편, 국가간 상호기술 협력을 통한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질적 향상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무기체계 동향 소개와 개발 중인 각종 무기들을 발췌, 분석하여 미래 공군력 건설에 적합한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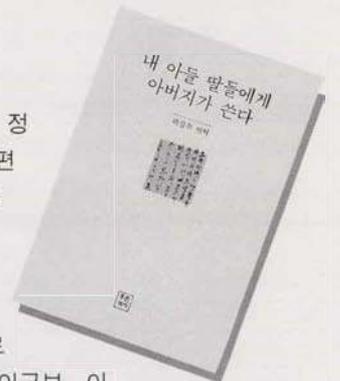
공군본부 전투발전단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전략 분야 관련 요원은 물론, 공군 전장병들이 부여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항공우주 무기 총람」을 발간하였는데 본 책자는 항공기, 우주무기, 방공무기, 항공무장·전자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에 발행된 항공기 관련 무기체계로만 구성된 「현대항공 무기 총람」보다는 더욱 알차고 완벽한 내용으로 엮여졌다.

전투발전단 엮음/571면/공군교재창

## BOOK

## 내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쓴다

정약용, 정제두, 이규보, 송시열, 정철 등 선인들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참다운 자녀 교육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언한 편지 모음.



선인들이 자녀들에게 보낸 43편의 편지글을 주제별로 6장으로 나누었으며, 1장에는 이규보, 이훈, 김수항, 안창호, 김 구, 김상용 등 9인이 유배지에서 또는 독립운동을 하느라 가족들과 떨어진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격려와 가르침의 편지글을 소개했다.

이어 자식들이 스스로를 갈고 닦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학문하는 이유와 학문의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자식 사랑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선인들의 편지글을 2장부터 6장까지 나누어 엮었다.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고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제시하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편지글이다.

허경진 엮음/292면/도서출판 푸른역사/8,000원

### 1. 공군 창작전 작품 공모

공군본부에서는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공군문화 창달을 위한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 창작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작품내용은 공군의 활약상 및 생활상, 영공방위 현장, 기타 다양한 소재의 예술 창작품으로 공모부문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일러스트, 사진, 프라모델, 공예입니다. 6. 29(화)까지 접수하며 심사결과는 7월 중에 발표됩니다.

(문의 : 각 부대 정훈참모, 호-6239, 042-552-6239)

### 2. 제103기 사관후보생 모집

공군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참신한 제103기 사관후보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99년 8월) 및 졸업자로서 지원서 접수(5.10~21), 신체검사 및 면접(6. 7~11), 학과시험(7. 11), 합격자 발표(9. 27)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연장복무자, 공인회계사 및 어학우수자, 기타 특기 보유자 등에 대해 가점 혜택을 부여합니다.

(문의 : 042-552-1151~3, 각 지방병무청)

### 3. 환경 표어·포스터·사진 우수작품 공모

공군본부에서는 장병 및 군무원들에 대한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 자연보호, 음식물 줄이기,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표어·포스터·사진을 공모(기간 : 4. 1~5. 15)하고 있습니다. 표어는 A4지 16자 내외이며, 포스터는 4절지에 4도 색상 이내이고, 사진은 컬러, 흑백 무관하며, 규격은 8×10(inch)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 호-4672, 042-552-4672)

### 4. 공군 평론 원고 모집

공군대학에서는 공군 평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내용은 공군 운영 전반에 관한 논문, 항공전략·전술 분야 및 항공우주과학분야, 군사정세 및 국제정세분야, 공군 교리발전 및 공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이며, 약력 및 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바랍니다.

(문의 : 자운대-4332, 042-870-4232)

\* 성실한 의견을 주셨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호 당첨자는 11전비 관리처 검토오 상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월간지로서 좀더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공군에 대해 평소 알고 싶거나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우리 '공군'에 알려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글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책에 있는 엽서나 관제엽서를 이용해 주십시오.

**1. 항공사(航空史) 인물과 시사성 있는 칼럼을**

지난 호에는 강화, 그곳에 남은 역사의 향기, 사이버 공군대학으로 오세요, 존 보이드의 항공전략 사상 등 읽을 거리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오스발트 윌케' 같은 항공사와 관련된 인물기사의 연재와 시사성 있는 칼럼 또는 앙케트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편집도 깔끔하고 그림(일러스트)이 참 예쁘구요, 지루하지도 않고 사진상태도 참 좋습니다. 더욱 좋은 공군지를 받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이현주/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 현실감과 자세한 설명이 돋보인 컴퓨터로 즐기는 전투비행의 세계**

지난 4월호의 컴퓨터로 즐기는 전투비행의 세계는 실제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6과 그 시나리오 배경이 우리나라에서 현실감이 있고 자세한 설명과 다른 잡지에서 접하기 힘든 내용도 있어서 흥미 만점이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현재 우리 공군이 대처하고 있는 Y2K 문제에 대한 기사가 실렸으면 합니다. 또한 4월은 과학의 달이

었는데 그에 맞는 기획물이나 특집이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 밖에 영화 "쉬리"에 관련된 기사와 KF-16 시험비행 조종사 관련기사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심우영/공군사관학교 행정처

**3. 우리나라의 항공기보다는 외국항공기의 소개를**

저 역시 공군으로서 항공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보니 매달 나오는 항공기 열전을 빼놓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말고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항공기의 종류와 사진 등을 실어주고 분석 및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공군'은 여러 가지 소재를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록하여 정말 호감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도 항상 독자의 의견을 듣고서 더 좋은 소재의 내용으로 '월간 공군'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승복/10전비 항전대대 유도중대



공군 군악 순회 연주회

나 이곳에서 하나되었네  
봄빛 흐드러진 마을  
가슴마다 활짝 핀 꽃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발길 닿은 곳 어디든지  
하늘 꿈꾸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아이들의 웃음이 개나리처럼 천진하고  
어른들의 웃음이 라일락처럼 향기로운  
내 꿈 속의 고향 같은 곳

나 이곳에서  
노래로 소리로 음악으로  
마음으로 하나되었네



# 종이비행기의 꿈

언제라도 쉽게 닿을 듯하지만  
내가 손을 내밀면  
다시 멀어지는 너

작은 손으로  
작게 작게 마음을 접어  
너에게 보낸다

어디로 갈까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세상  
천지를 헤매이다가  
닿을 곳은 너의 가슴

그때쯤 대답해다오  
네 가슴에 피어난 구름과  
무지개와  
향기로운 바람으로

이렇게 나는 꿈을 꾸다  
하늘이여

신경민



대한민국 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9-1999

월간 공군은 공군인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독자엽서

공군내  
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보내는 사람

이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